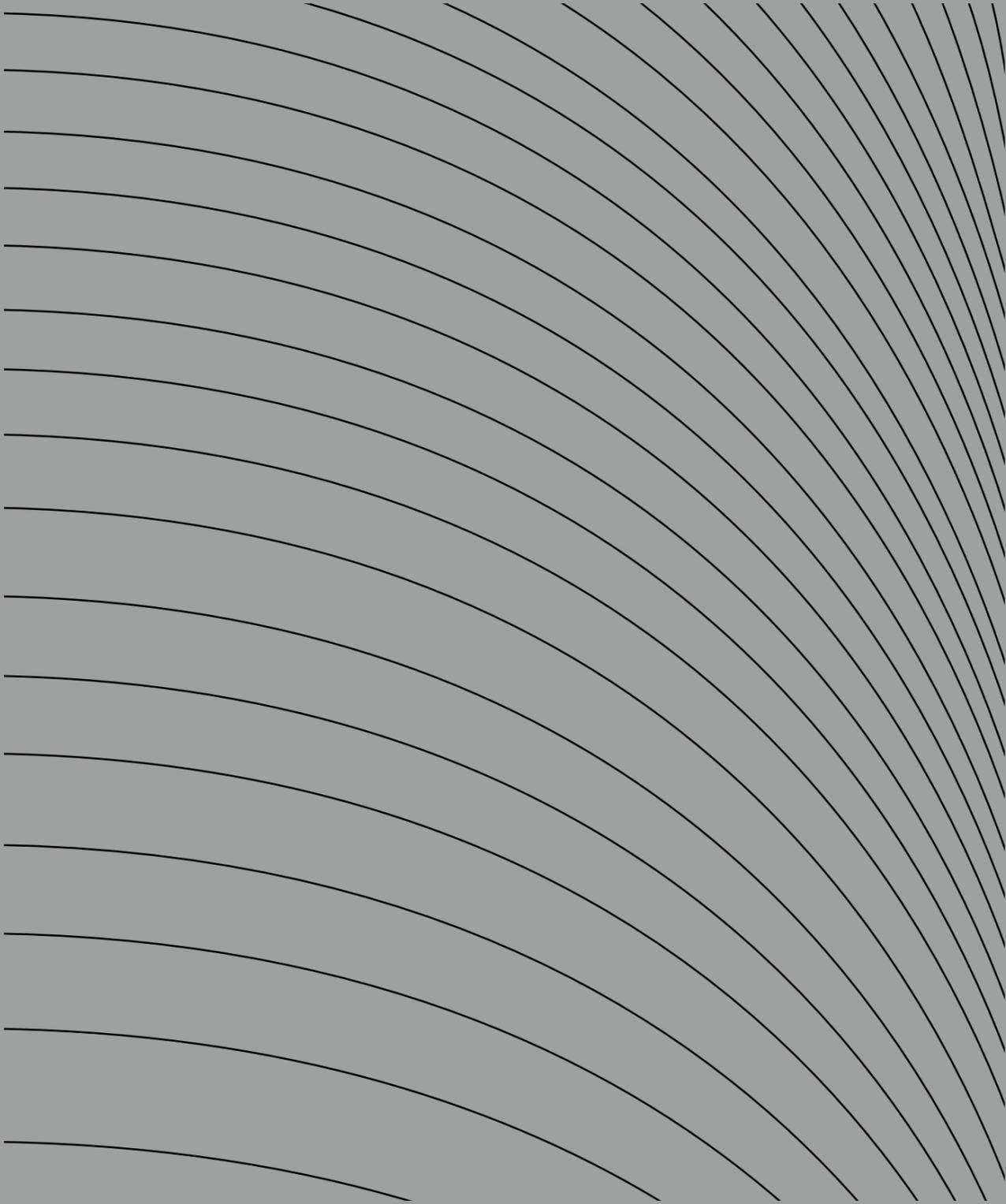


1953-2023

현대제철 70년 | 화보

HYUNDAI STEEL



HYUNDAI STEEL

현대제철 70년 | 화보

1953-2023



H HYUNDAI
STEEL

HYUNDAI STEEL

현대제철 70년 | 화보

1953-2023



CONTENTS

사진으로 보는 현대제철 70년 HYUNDAI STEEL's History in Pictures

Chapter. 1 철강산업 부흥과 경제성장 초석
1953~1977



Chapter. 2 현대의 철강사업 의지와 도약의 계기
1978~1999



Chapter. 3 일관제철소 건설과
세계 최초 자원순환형 그룹 완성
2000~2013



Chapter. 4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대도약
2014~2018



Chapter. 5 다음 세대를 위한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
2019~2023



일러두기

- 1 | 회사의 명칭은 각 시기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사용했다. 단, 회사 전체를 지칭할 때는 현재 사명인 '현대제철'을 사용했다.
- 2 | 모든 표기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했으며, 전문용어나 고유명사의 경우 원어로 표기했다.
- 3 | 맞춤법 및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을 따랐으나,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그 표기를 준용했다.
- 4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천, 만, 억, 조 등의 보조단위를 사용했으며, 연도는 네 자릿수로 표기했다.

사진으로 보는 현대제철의 오늘 HYUNDAI STEEL's Today

현대제철 국내 사업	당진제철소 Dangjin Integrated Steelworks	126
	인천공장 Incheon Works	178
	포항공장 Pohang Works	192
	순천공장 Suncheon Works	204
	울산공장 Ulsan Works	212
	현대제철연구소 HYUNDAI STEEL R&D Center	222
	판교오피스 Pangyo Office	230



현대제철 해외 사업	238
-------------------	-----



HYUNDAI STEEL's

History in Pictures

사진으로 보는 현대제철 70년

Chapter. 1

철강산업 부흥과 경제성장 초석

1953~1977

Chapter. 2

현대의 철강사업 의지와 도약의 계기

1978~1999

Chapter. 3

일관제철소 건설과 세계 최초 자원순환형 그룹 완성

2000~2013

Chapter. 4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대도약

2014~2018

Chapter. 5

다음 세대를 위한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

2019~2023

1953 — 2023

Chapter. 1

철강산업 부흥과 경제성장 초석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원료와 동력, 인력 부족 등으로 암흑기를 맞았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철강산업 재건 노력과 정부의 철강산업육성책에 힘입어
1953년 6월, '대한중공업공사'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인 철강산업의 부흥이 시작됐다.

1953~1977

Chapter. 2

현대의 철강사업 의지와
도약의 계기
1978~1999

Chapter. 3

일관제철소 건설과
세계 최초 자원순환형 그룹 완성
2000~2013

Chapter. 4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대도약
2014~2018

Chapter.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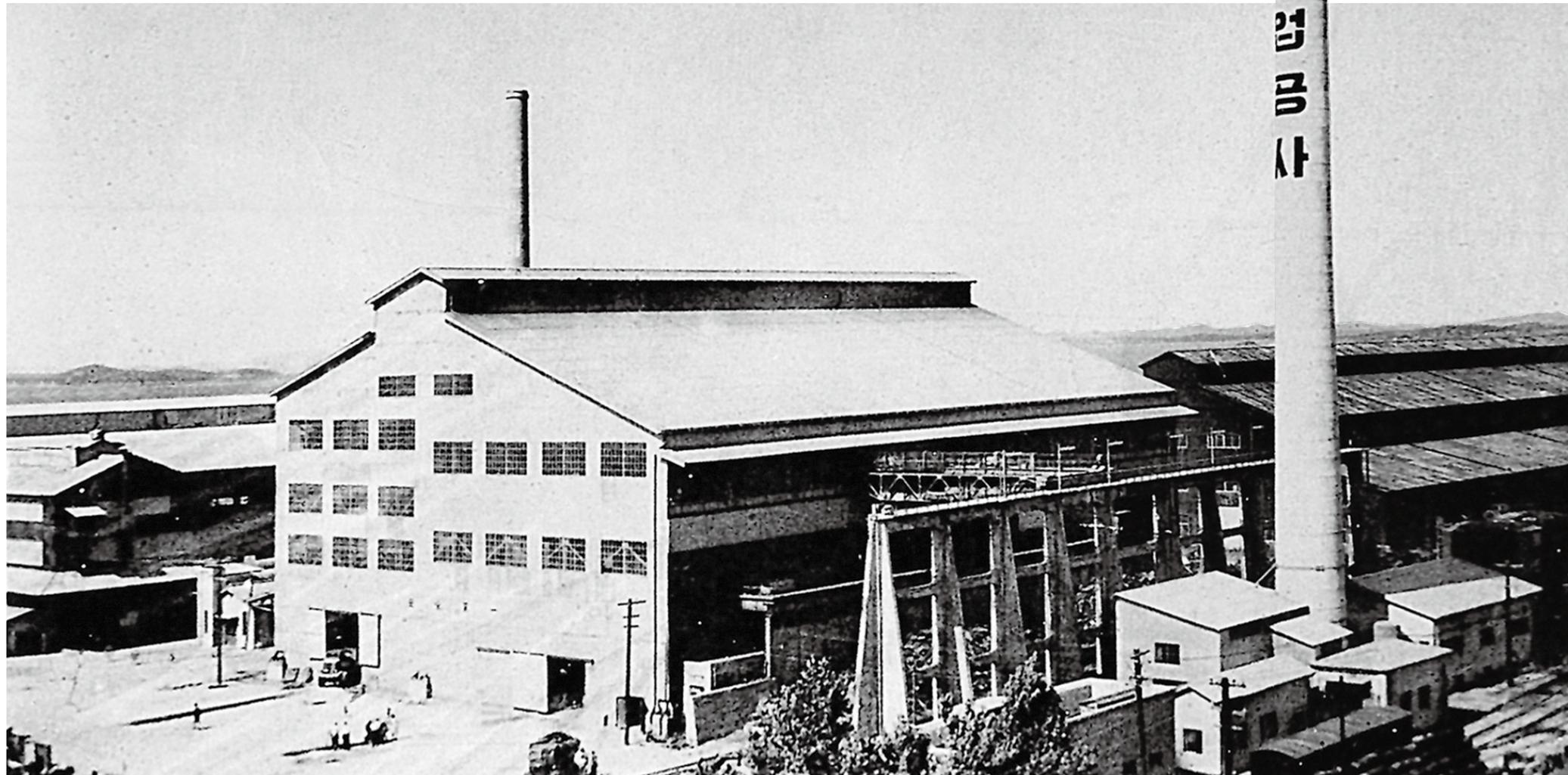
다음 세대를 위한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
2019~2023

대한중공업공사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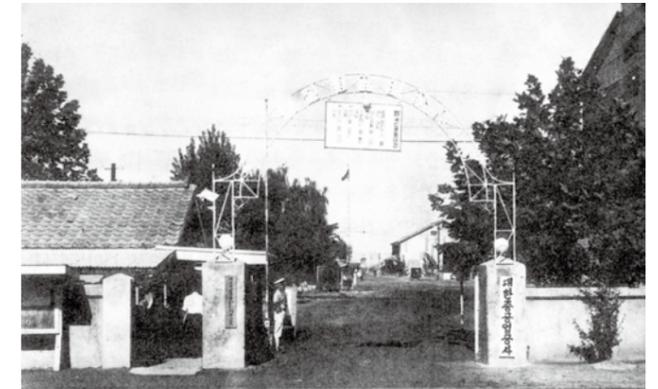
1953.06.

현대제철의 역사는 1953년 6월 10일 창립한 '대한중공업공사'로부터 시작된다. 한국전쟁 이후 피폐해진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을 재건하고자 정부는 1952년 '철강업 재건계획'에 이어 1953년 4월 '철강산업 부흥책'을 마련하며 국가기간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산업을 진흥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전후 복구사업의 핵심인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대한중공업공사의 제강사업 건설공사계획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한중공업공사는 1953년 5월 15일 상공부장관 명의로 초대 이사진을 임명해 국영기업체의 면모를 갖췄으며 같은 해 6월 10일, 피난지 부산의 임시 사무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대내외에 창립을 알렸다. 이때를 기점으로 회사의 창립기념일은 6월 10일로 정해졌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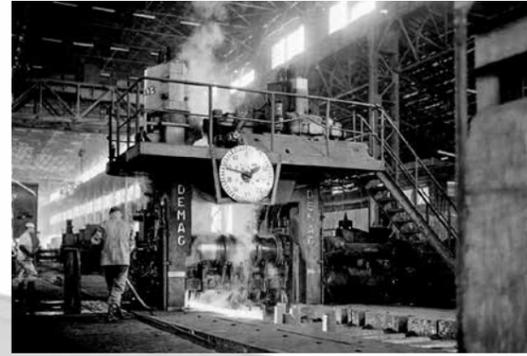
- 01 | 창립 초기 대한중공업공사 전경
- 02 | 대한중공업공사 시절 회사 정문



02

초기 본사 이전 연혁

- 1954.04. | 최초 서울 본사였던 서울 남대문로 1가 동일빌딩¹⁾ 
- 1955.11. | 서울 종로구 경운동으로 이전
- 1958.05. | 인천공장으로 이전 통합
- 1959.02. | 서울 종로구 경운동으로 재이전
- 1959.06. | 서울 중구 북창동 세기빌딩으로 이전²⁾ 
- 1961.04. | 서울 중구 무교동 현대빌딩으로 이전³⁾ 
- 1961.08. | 인천공장으로 이전 통합
- 1963.08. | 서울 중구 양동 대한생명빌딩으로 이전
- 1964.10.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17-12로 이전 
- 1965.08. | 인천중공업 본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삼정빌딩으로 이전
- 1965.10. | 인천제철 본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개풍빌딩으로 이전
- 1967.04. | 인천중공업 본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삼일빌딩으로 이전
- 1970.03. | 인천제철·인천중공업 양사 합동 본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동화빌딩으로 이전
- 1972.04. | 인천공장으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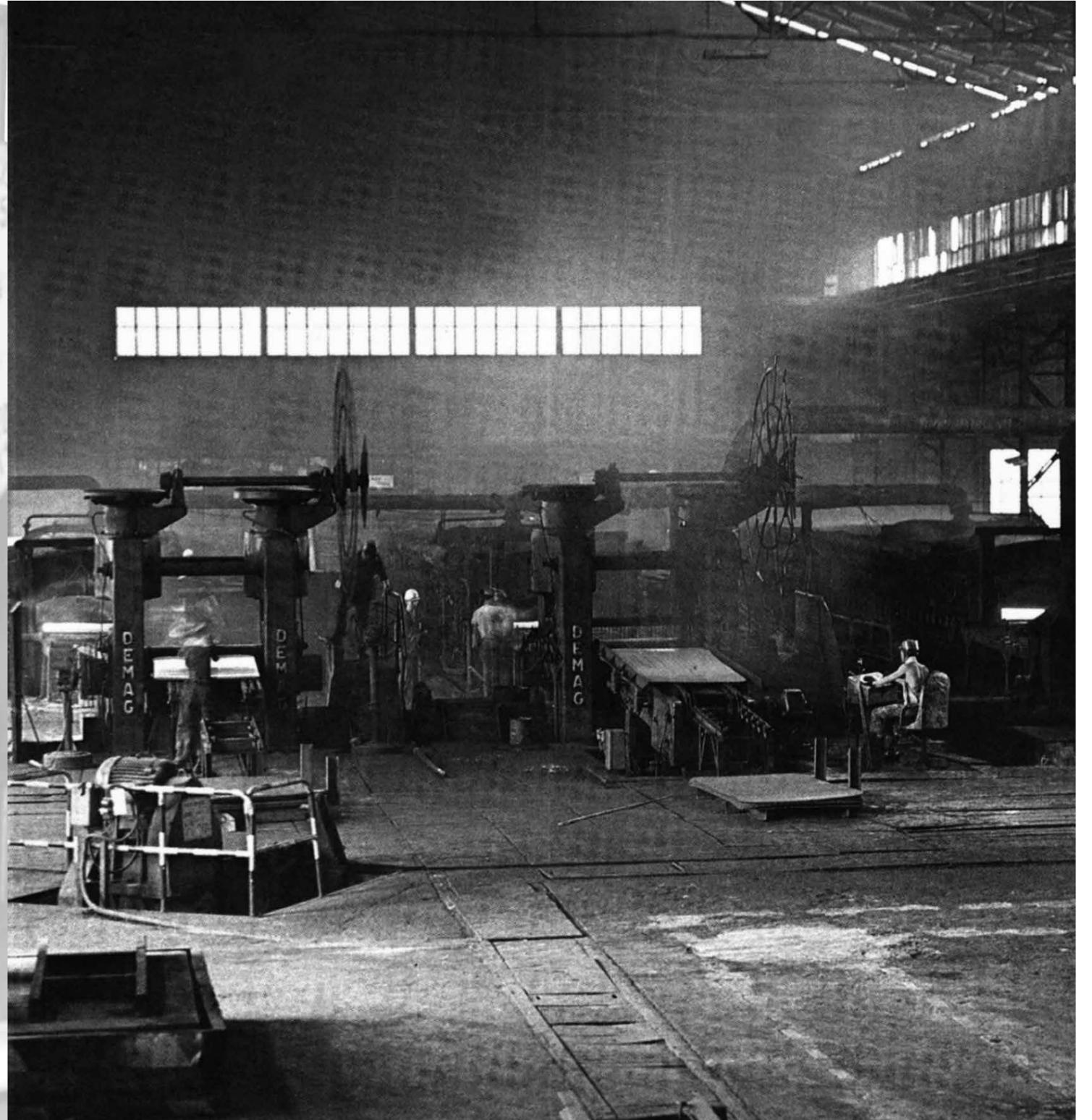
01
02

- 01 | 분괴압연공장 분괴압연기 시업연
- 02 | 평로 용해과정 중 교반작업
- 03 | 1960년 4월 완공한 박판 압연공장 내부(1985년까지 가동)



분괴압연공장 분괴압연기 시업연

대한중공업공사 제강공장의 핵심 시설이었던 압연공장은 1956년 독일 데마그와 시설계약을 맺고 1959년 12월 준공했다. 분괴압연기의 시업연을 거쳐 이듬해 2월부터 조업을 개시했다.



03



01

인천중공업주식회사로 새 출발 1962.11.

대한중공업공사는 기업체로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1961년 6월, 정부에 회사법을 제출했다. 1962년 8월 13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인천중공업주식회사법을 정식으로 의결하고 법률 제1123호로 공포했다. 같은 해 9월 25일 인천중공업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가 조직됐고, 9월 26일 인천중공업주식회사 정관이 의결 통과됐다. 대한중공업공사는 1962년 11월 10일 회사 설립 등기를 마치고 '인천중공업주식회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 01 | 1962.11.10. 인천중공업주식회사 설립
- 02 | 1964.04. <인천중공업기보> 제2호 표지

<인천중공업기보> 발행

무(無)에서 출발한 우리 회사가 현재에 이르기까지에는
피땀어린 우리 기술진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이며
어떤 우연이나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리 회사의 당면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점유하는 위치로 보아
우리나라 철강공업의 전체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나라 철강공업발전의 중책이
우리에게 지워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이켜 보고
또 앞으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 가속도적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극도로 과학화(科學化)하는 경영관리로
현대의 산업이 일수도 머무를 줄 모르고 변천해가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연구하고
이를 과감하게 착실히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1964년 4월 <인천중공업기보> 제2호 발간사 중

02



인천제철과 인천중공업 합병으로 통합 인천제철 출범

1970.04.

정부는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1964년 7월, 정부관리 기업체 중 일부를 민영화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중공업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자,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국내 철강 관련 인사들은 인천중공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1964년 10월 10일 인천제철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정부는 인천중공업 민영화를 주식 구매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인천제철은 적극적으로 구매에 참여해 1966년, 2년여 만에 인천중공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01



02



1965.01. 데마그·루르기 컨소시엄으로부터 시설 재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3680만 마르크의 차관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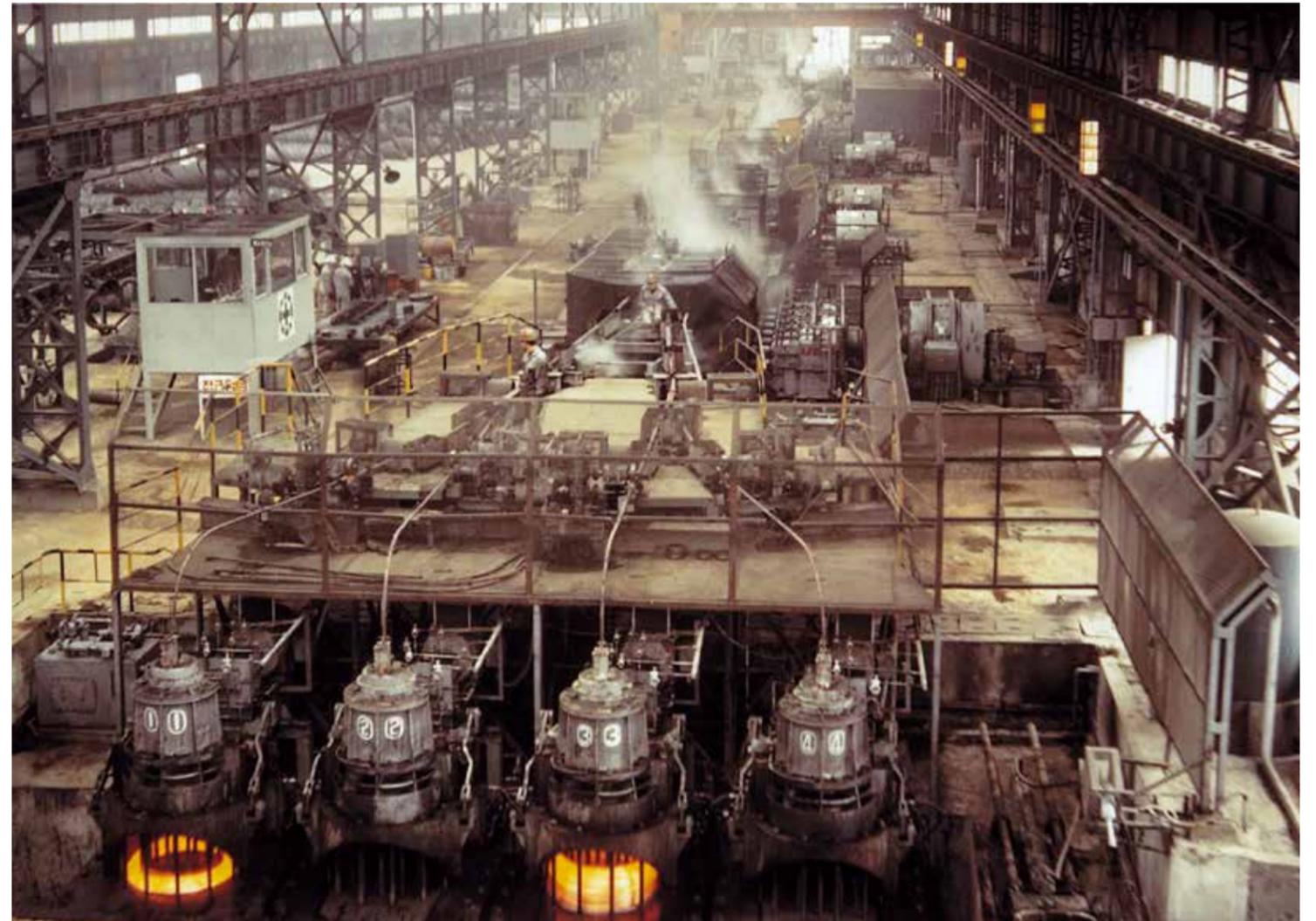
인천제철은 데마그·루르기로부터 설비 도입 결정 이후 공사에 박차를 가해 1968년 말 공장 건물과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1969년 초부터 시험운전을 시작했다. 당시 예비환원공장과 전기제선공장을 건설했으며, 규모는 2만 3000㎡에 달했다. 예비환원공장의 주요 설비는 철광석 파쇄설비, 사벌설비, 분쇄·부화설비, 펠릿설비, SL/RN 회전로 등이었고, 전기제선공장에는 로용저광조, 전기제선로, 전극설비와 함께 기타 부대설비가 갖춰졌다.

- 01 | 1965.01. 데마그·루르기 컨소시엄과 시설 재도입 계약 체결, 차관도입 서명
- 02 | 1969.12.08. 인천제철주식회사 주권
- 03 | 선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검수(1973년 준공)
- 04 | 선재공장 연속압연 설비



03

04



인천제철은 인천중공업 인수 이후 일관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해 의욕적으로 공장건설을 추진했지만, 과도한 투자로 결국 경영부실 상황에 봉착했다. 1969년 3월부터 정부는 본격적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방안을 마련했는데, 인천제철과 인천중공업도 여기에 포함됐다. 결국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기닥을 잡아 정부와 산업은행 주도로 합병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인천제철은 1969년 12월 29일 인천중공업과 합병계약을 체결했고, 1970년 4월 1일 합병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법률적인 합병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인천중공업과의 통합으로 인천제철은 새로운 회사로 다시 출발했다.

인천제철은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방침에 따라 1970년 4월 인천중공업을 흡수합병하고 7월부터 2개월 동안 기계보수 작업과 시운전을 모두 끝내 제선, 제강, 압연의 일관공정에 의한 정상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제1공장의 본격 가동으로 선철 12만 5000톤을 국내 생산 공급하게 돼 연간 1000만 달러의 외화 절약이 가능하게 됐다.

- 1970.10.16. 매일경제



01

01 | 전기로 제선공장(1968년 준공)

02-03 | 1970.10.16. 인천제철 제1공장 종합준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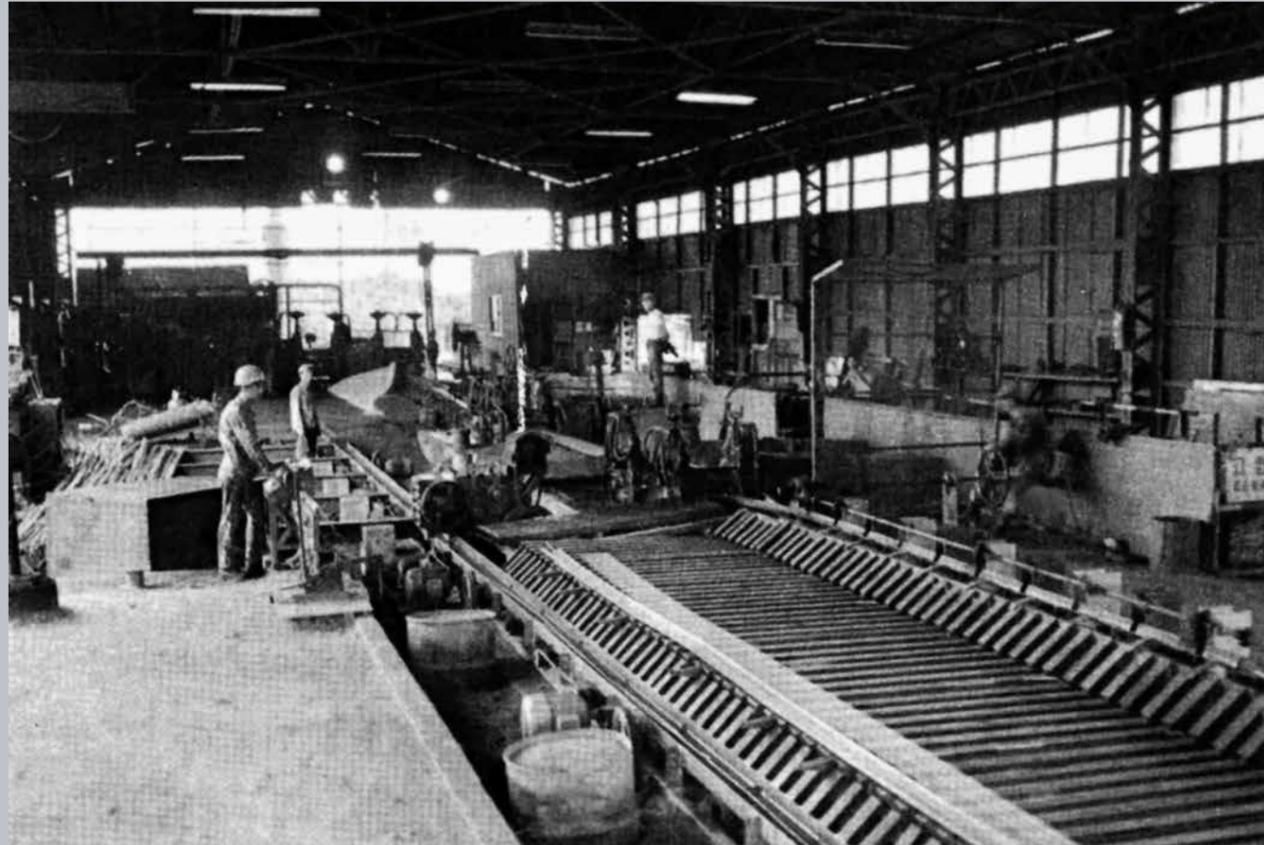


02



03

통합 인천제철 당시 건설한 공장 및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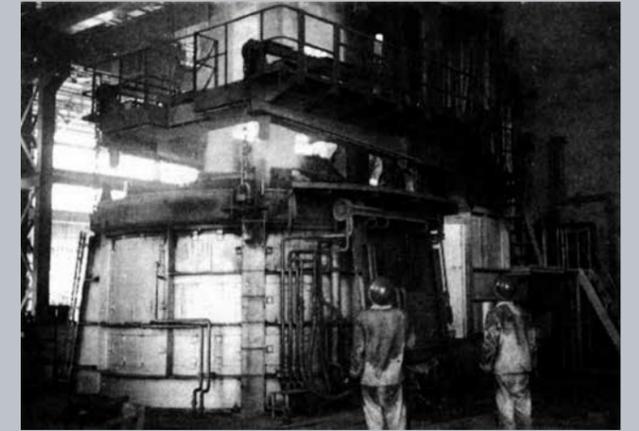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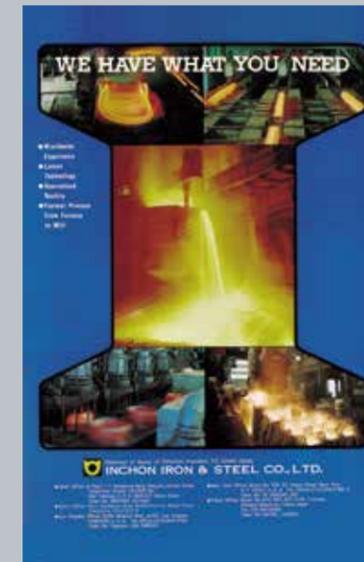
- 01 제2소형 압연공장 조업 광경(1968.09. 준공)
- 02 1971.08.25. 제3소형 압연공장 기공식
- 03 1973.07. 40톤 전기로 준공
- 04 1974.06. 소형선 부두에서 수출 제품 선적(1974.06. 부두 완공)
- 05 인천제철 해외 광고(1970년대 중반 제작)



03

04

05



현대의 철강사업 의지와 도약의 계기

1960년대 후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중화학공업 육성과 함께 기계·조선·전자·철강공업육성법 등 개별 공업진흥법이 제정됐다. 철강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이에 1977년 새로운 종합제철소 건설이 대두됐고, 현대그룹은 현대종합제철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제2종합제철소 건설에 대비했다.

1978~1999

Chapter. 1

철강산업 부흥과
경제성장 초석
1953~1977

Chapte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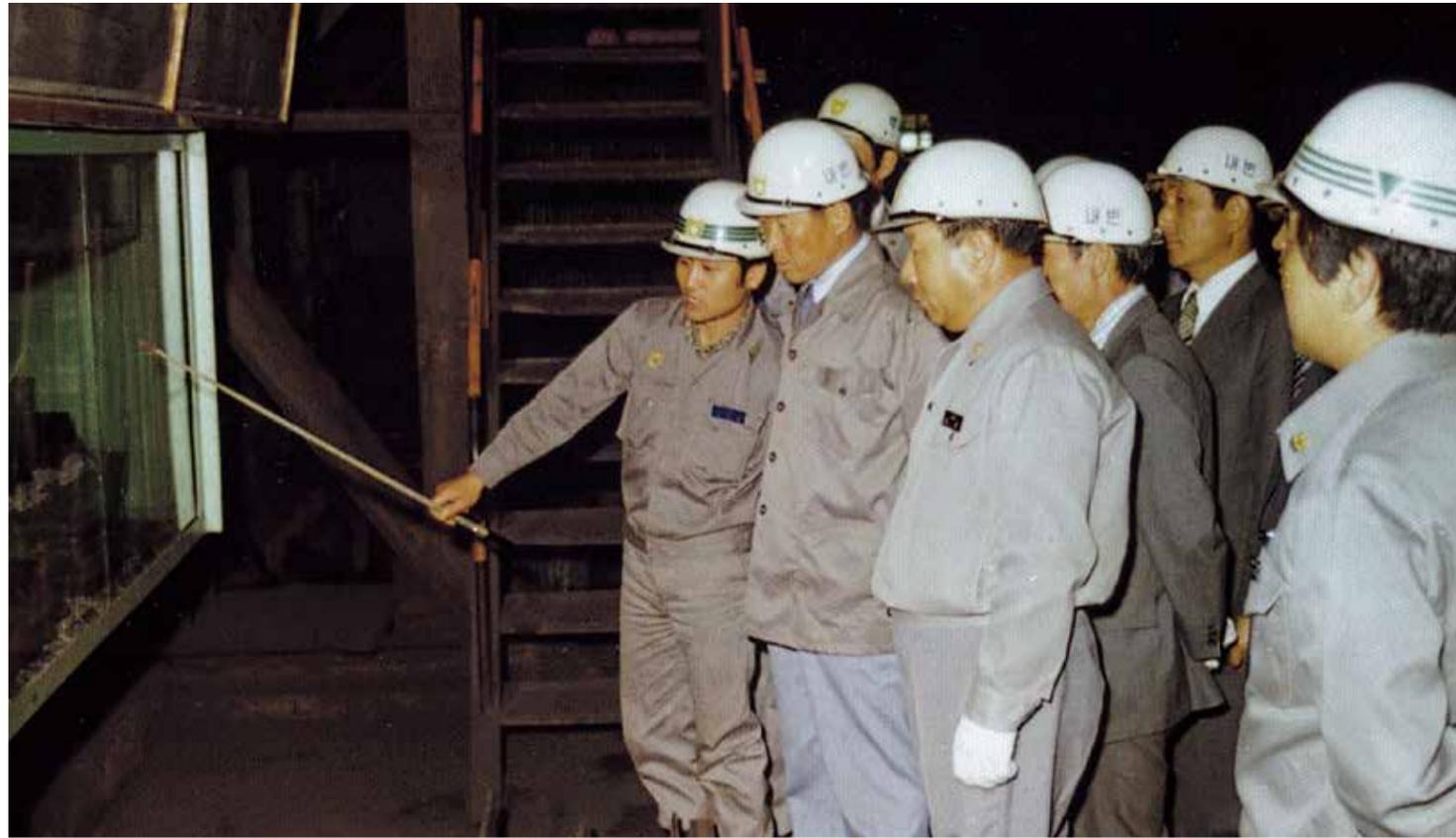
일관제철소 건설과
세계 최초 자원순환형 그룹 완성
2000~2013

Chapter. 4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대도약
2014~2018

Chapter. 5

다음 세대를 위한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
2019~2023



01

현대그룹에 편입

1978.06.

현대그룹은 제2종합제철소 건설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1977년 현대중합제철주식회사 설립도 그 일환이었다. 때마침 정부는 인천제철 민영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1978년 5월 인천제철 주식 매각을 위한 첫 공개입찰이 실시됐다. 한 차례의 유찰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인천제철은 현대그룹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03

02



- 01 | 1978. 현대그룹 편입이 결정된 직후, 인천제철을 방문한 정주영 선대회장
- 02 | 그룹 편입 후 처음으로 참가한 현대그룹 종합체육대회
- 03 | 1979. 급등한 철스크랩 가격에 대응해 원활한 원료수급의 일환으로 진출한 고선박 해체사업
- 04 | 1979. VLCC 1호와 고선박 해체작업에 나선 임직원들

04



대형 H형강공장 준공과 국산화

198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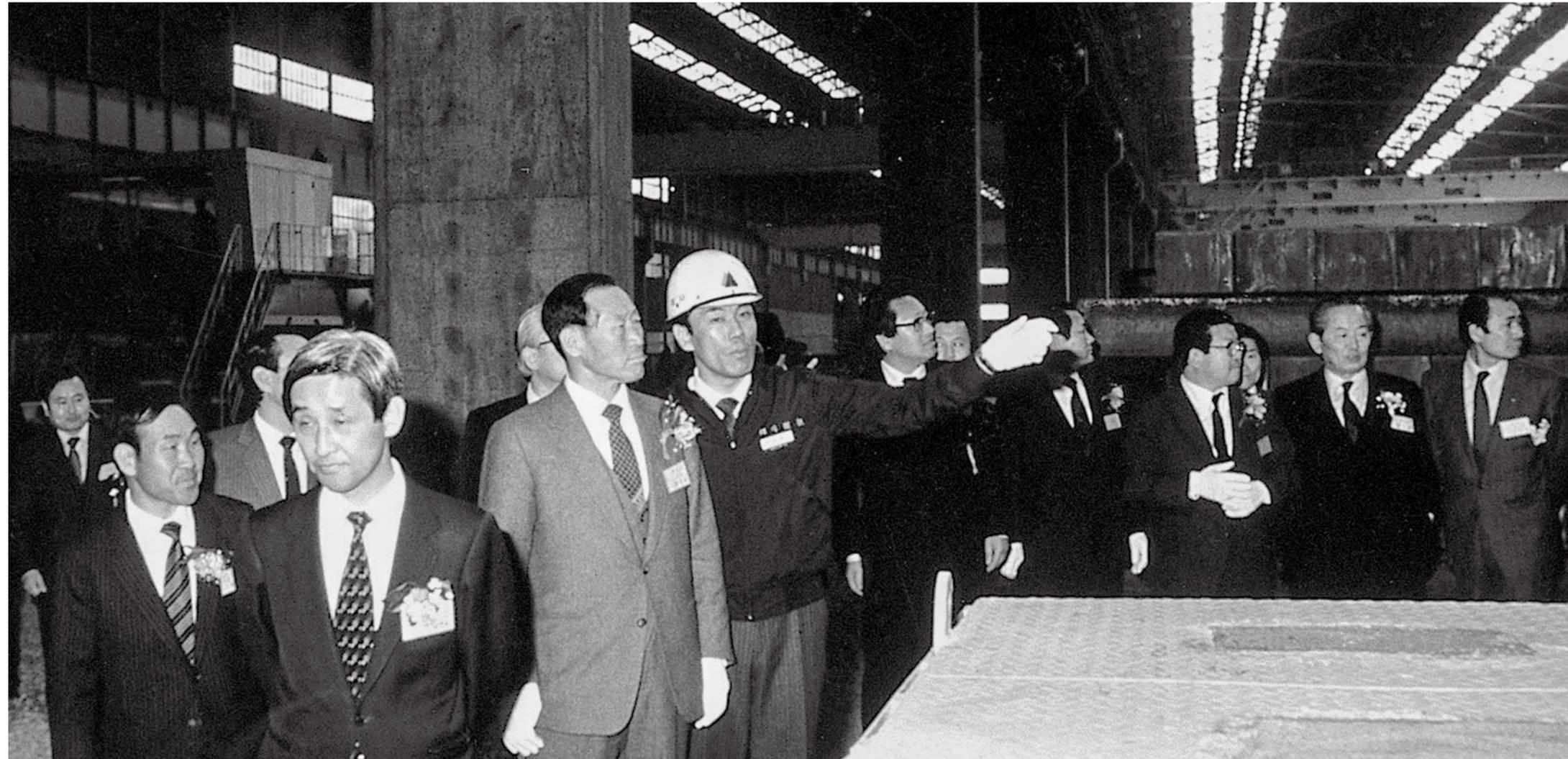
인천제철은 형강제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대형 형강공장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중 부가가치가 높은 H형강 생산설비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1981년 2월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건설 시공은 현대건설이 담당했으며, 시공 이후 1년 만인 1982년 3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대형 H형강공장 준공으로 인천제철은 H형강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철강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 01 | 1982. 대형 H형강공장 준공 후 공장을 방문한 정주영 선대회장
- 02 | 1987. H형강류, 철근류에 대한 JIS 인증 획득 아치 광고
- 03 | 1982.03.05. H형강공장 준공 광고(매일경제)



02

01



지난 해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는 저희 회사는 첨단 기술과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완전 자동설비를 갖춘 이 공장의 가동으로 그동안 전량 수입에만 의존해 오던 압연 H-형강을 생산, 공급하게 됨으로써 연간 1억 7000만 불 상당의 수출 및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1982.03.05. 매일경제에 게시한 H형강공장 준공 광고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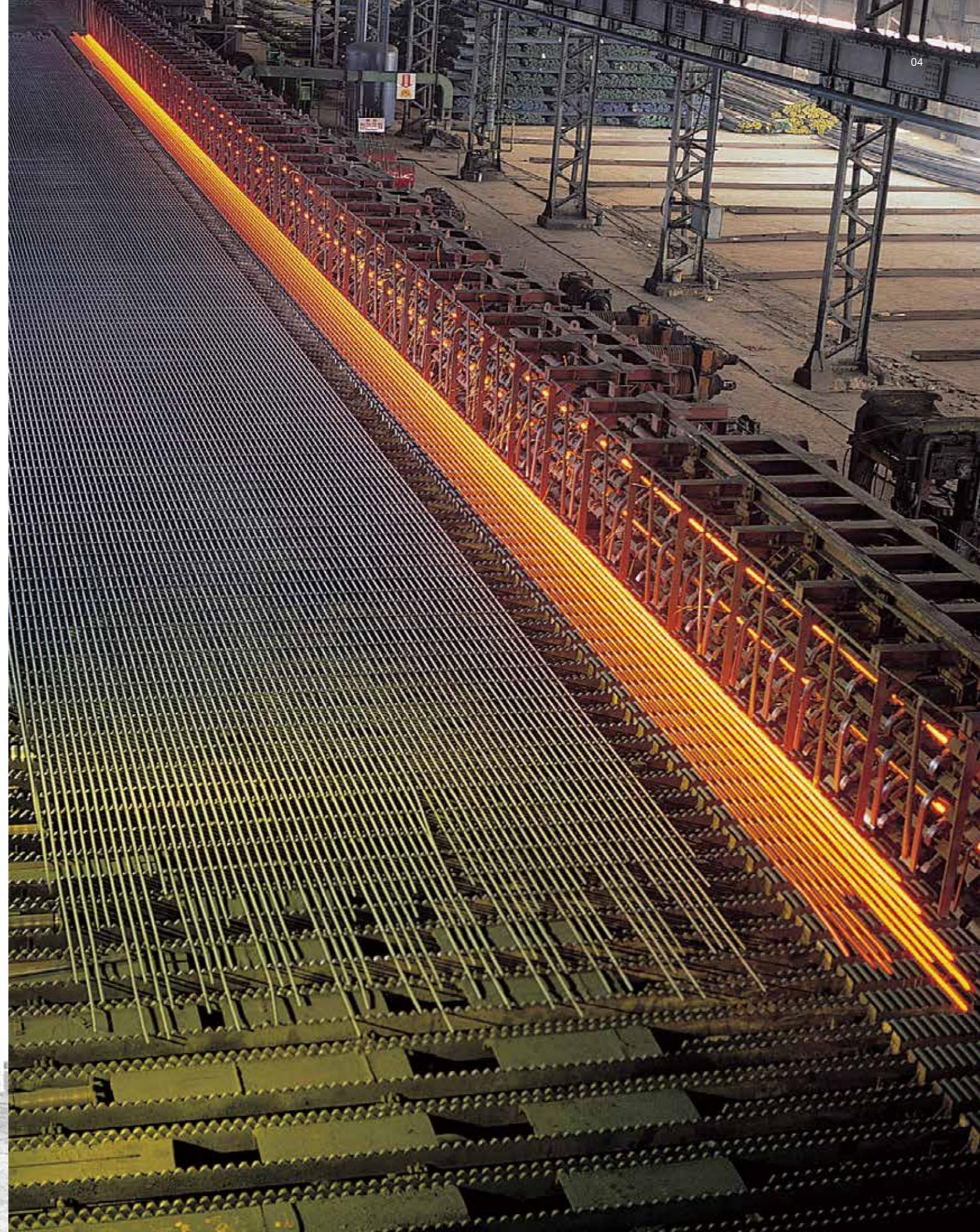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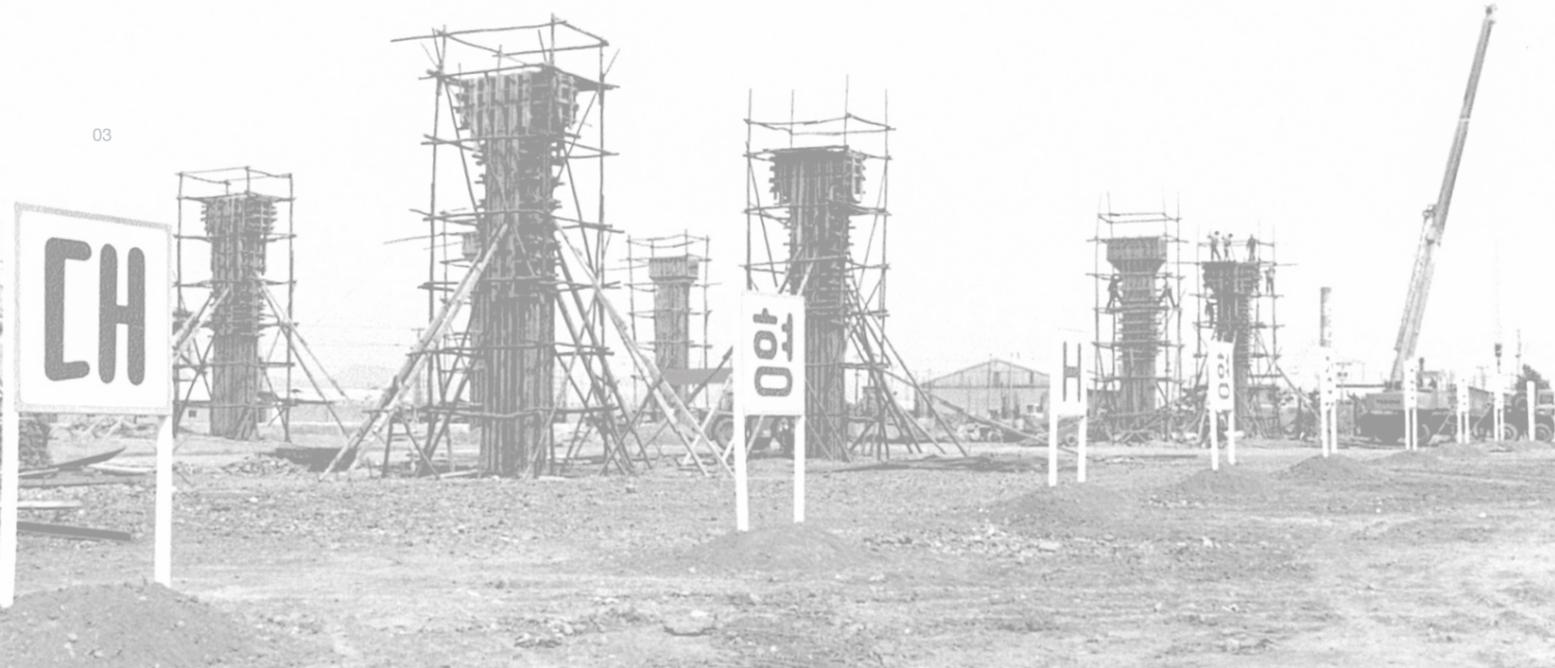
01
02

- 01 | 성황을 이룬 대형H공장 준공식
- 02 | H형강공장 제품 생산
- 03 | 대형 H형강공장 건설현장
- 04 | 철근공장 제품 생산현장(1980년대 초)

제철은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다.
 제2 제철을 만든다고 하니까
 선진국 사람들은
 정신 나간 생각이라고 한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조선소를 만들 때도 똑같이 말했다.
 온 세계에서 하고 남은 일만
 찾으려 한다든가, 너무 뒤쳐져 있다고
 출발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아무 일도 못 하게 된다.

- 1983.10.24. 정주영 선대회장, 그룹 사원 특강에서

03



04



설비합리화 공사
 인천제철은 1984년부터 1986년까지 1차 설비합리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곧바로 생산체제 고도화를 위한 2차 설비합리화에 착수했다. 2차 설비합리화는 무려 20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진행했으며, 1986년 9월 시작해 1988년 10월 완료했다.

- 01 | 1985년 개조공사 이후의 선재공장
- 02 | 선재 생산설비, 오실레이터에서 제품이 권취된 후 이송 롤러테이블로 이동되는 모습
- 03 | H형강 생산현장(1990년대 초)
- 04 | 50톤 전기로
- 05 | 60톤 전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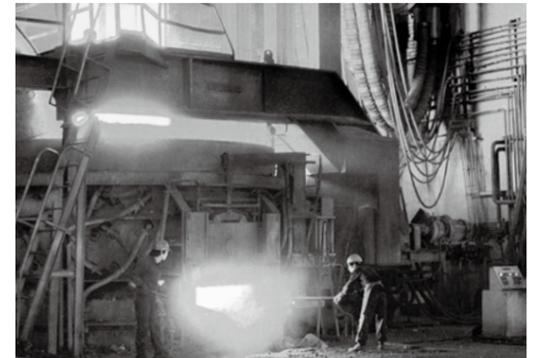


02

03



0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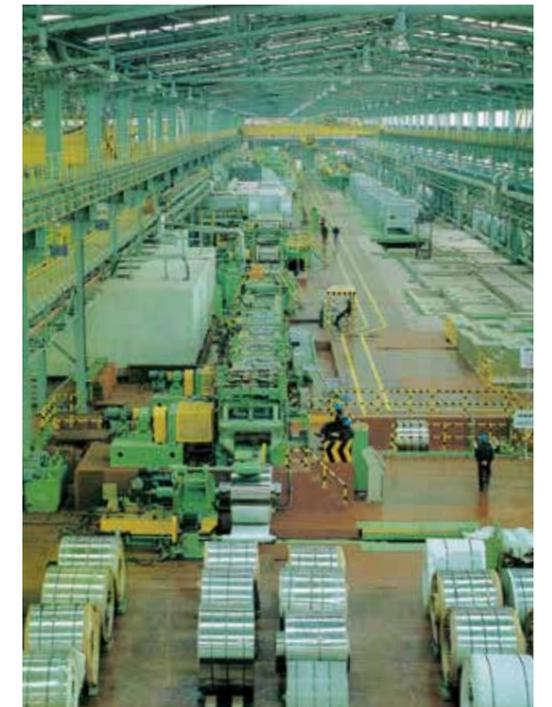
01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준공**
1990.03.

1987년 6월, 인천제철은 기술개발부 내 스테인리스 연구개발팀을 신규 사업부로 독립시키며 스테인리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같은 해 8월 시설투자 승인, 특별 외화대출 준비, 소요자금에 대한 계획 수립과 사정을 진행해, 12월에는 정식으로 공장 설립 허가를 획득했다. 1988년 8월 공장 기공식 이후, 1990년 3월 1차 설비 준공식을 거행했다. 스테인리스 냉연공장은 연간 5만 톤의 생산 규모를 갖췄으며, 현대제철은 공장 준공으로 특수강 분야에 진출해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01 | 1990.03.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1차 준공식
- 02 |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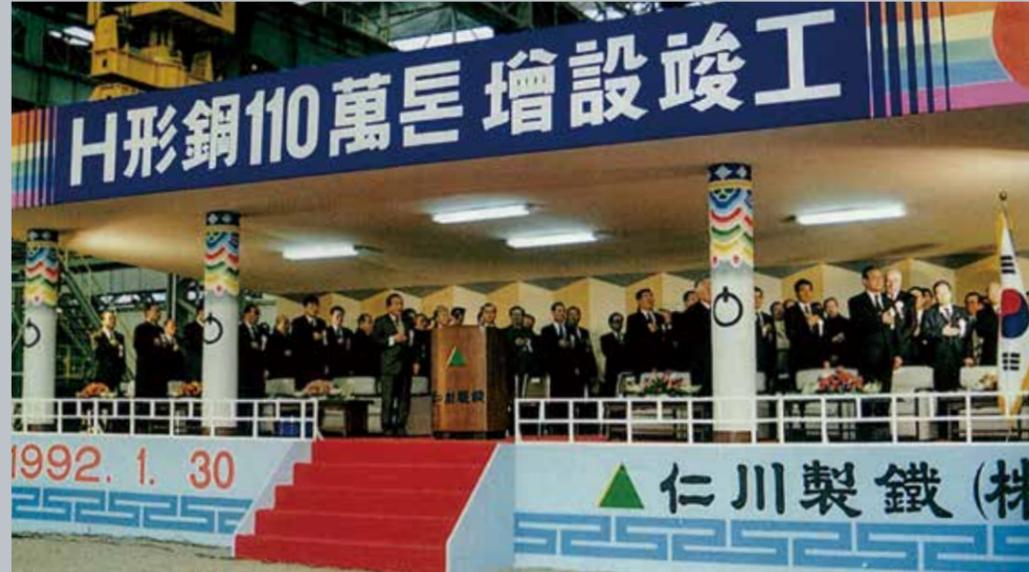
02



| 1990.10. 인천제철 전경



1990년대 준공한 주요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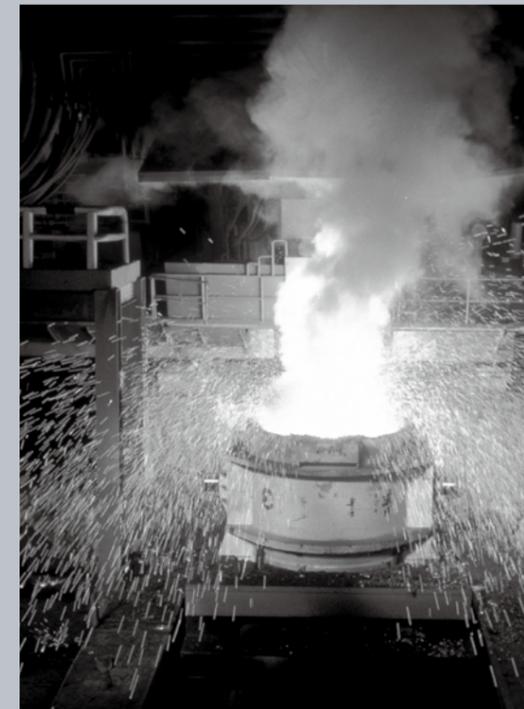
01

02



- 01 | 1992.01.30. 110만 톤 H형강공장 증설 준공식
- 02-03 | 1994.12. 90톤 전기로 제강공장과 제2철근공장 합동 준공식
- 04 | 1997.03.08. 인천제철, 세계 100대 철강기업 편입 기사(중앙경제신문)

03



인천제철, 세계 100대 철강기업 편입

인천제철은 지난 1992년 72위에서 작년에는 65위로 7단계를 뛰어넘는 신장세를 기록했다. 인천제철은 지난해 전년의 249만 톤보다 12.4% 증가한 280만 톤의 조강을 생산해 전기로 업체로는 미국 뉴코어(27위), 동경제철(40위) 등과 함께 세계 4대 전기로 업체로 등장했다.

- 1997.03.08. 중앙경제신문 기사 중



04

財界로더리

「100대 철강」 국내 3社 기여
浦鐵2·仁川65·東國84위

浦鐵·仁川製鐵·東國製鐵 등 국내 3대 철강업체가 세계 철강 1백대기업에 선정됐으며 韓寶 등도 1백대기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적인 철강 정보지 『메탈 볼리틴』이 최근 집계·발표한 지난해 세계 1백대 철강기업 순위에 따르면 포철은 2위, 인천제철이 65위, 동국제강이 84위에 각각 랭크됐다. 포철은 지난 92년 조강 생산량이 2천만 t으로 3위였지만 지난해 2천2백53만 t을 생산, 92년 2위였던 프랑스의 유지노 사심토르를 제치고 2위로 뛰어 올랐다. 일본의 新日鐵은 지난해 2천5백83만 t의 조강을 생산, 세계 1위 철강업체 자리를 지켰다. 仁川製鐵은 지난 92년 72위에서 작년에는 65위로 7단계를 뛰어넘는 신장세를 기록했다. 인천제철은 지난해 전년의 2백49만 t보다 12.4% 증가한 2백80만 t의 조강을 생산해 전기로업체로는 미국 뉴코어(27위)·日 東京製鐵(40위)등과 함께 세계 4대 전기로업체로 등장했다. 동국제강은 지난 92년 1백대 철강기업에는 명함을 못내밀었지만 작년에는 수십계단을 뛰어넘는 성장을 거듭해 84위에 올랐다. 동국제강은 작년에 전년동기의 1백65만 t보다 34.5% 증가한 2백22만 t을 생산했다. 이외에도 韓寶·韓國製鐵·江原産業 등 국내 철강회사들이 내년 혹은 96년 이후에 세계 1백대철강기업에 오를 재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대유도 증설에 나선 한보철강은 내년 조강생산량이 올해보다 2백만 t 늘어난 3백만 t에 육박하게 돼 세계 50위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 宋明錫기자 >

기술연구소 설립과 전산 시스템 마련



01



02

- 01 | 1985.06.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전산실
- 02 | 1997.11.25. 인재개발원 내 공장 자동화 학습장 개설
- 03 | 1997.10.04. 인천제철 기술연구소 준공
- 04 | 1999. 생산·조업·출하를 관리하는 통합생산관리시스템 완성



03



04

스포츠탄 창설과 복지 및 직원 활동



01

02

인천제철 여자축구단 오늘 출범

현대그룹계열인 인천제철이 1993년 12월 3일 창단식을 갖고 국내최초의 여자 실업팀을 출범시킨다.

인천제철팀은 월드컵대표를 지낸 송희숙을 사령탑으로 국가대표 최영애 등 15명의 선수로 구성했으며 내년까지 26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천제철팀은 다른 여자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내년4월에 열리는 춘계대학연맹전에 치내출전, 여자 대학팀들과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인천제철팀의 창단으로 여고와 여자 실업팀을 출범시킨다.

인천제철은 월드컵대표를 지낸 송희숙을 사령탑으로 국가대표 최영애 등 15명의 선수로 구성했으며 내년까지 26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천제철팀은 다른 여자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내년4월에 열리는 춘계대학연맹전에 치내출전, 여자 대학팀들과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인천제철팀의 창단으로 여고와 여자 실업팀을 출범시킨다.

첫 여자실업팀... 4월부터 경기

대학을 졸업하면 더이상 축구를 할 수 없었던 유망주들이 선수생활을 계속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축구연맹은 인천제철의 팀창단을 계기로

화장품업체 의류업체 은행을 대상으로 팀창단을 교섭하고 있는데 한국화장품, 논노, 외환은행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제철여자축구팀명단
 ▲단장=최옥주(인천제철부사장)
 ▲감독=송희숙 ▲선수=이미애 김문희 양은경 김선연 오연희 유현주 양금민 백남주 손수의 주은숙 김미숙 김혜경 노은숙 양미영 정윤정 <속보기자>

03



仁川제철 양궁팀 창단

인천제철이 24일 남자양궁팀을 창단했다.이로써 남자 실업팀은 12개팀으로 늘어났다.

◇선수단 명단
 △감독=李宅雨△코치=尹聖哲△선수=許相昱 崔場原 嚴炯喆

04

- 01-02 | 1993.12.03. 인천제철 여자축구단 창단 기사(경향신문)
- 03-04 | 1993.02.24. 인천제철 남자양궁단 창단 기사(동아일보)
- 05 | 1994.06.29. 인천 옥련동 사원아파트 입주식
- 06 | 추석 귀향버스 운행
- 07 | 1사 1로 운동으로 인천 송림동 거리를 청소하는 직원들
- 08 | 1990.02.08.-04.28. 한마음 전진대회



05



06
07

08



일관제철소 건설과 세계 최초 자원순환형 그룹 완성

1997년 외환위기 사태로 인해 철강업계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특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철강업계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이 강구됐다.

당시 인천제철 역시 외환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래시장 변화에 대비한 투자를 멈출 수는 없었다.

2000년 강원산업과 삼미특수강을 인수하고, 2004년에는 한보철강 당진공장을 인수하며

우리나라 철강산업 구조조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00~2013

Chapter. 1

철강산업 부흥과

경제성장 초석

1953~1977

Chapter. 2

현대의 철강사업 의지와

도약의 계기

1978~1999

Chapter. 4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대도약

2014~2018

Chapter. 5

다음 세대를 위한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

2019~2023

강원산업과 삼미특수강 인수 2000.03. / 2000.12.

인천제철은 2000년 강원산업과 삼미특수강을 차례로 인수했다. 인천제철은 강원산업을 인수해 당시 우리나라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주도해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2위의 전기로 업체로 도약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삼미특수강 인수로 특수강사업에 진출하고, 자동차와 기계 분야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01



02

- 01 | 2000.03.14. 인천제철-강원산업 합병 발표
- 02 | 1999.07.28. 인천제철-강원산업 합병 기사(매일경제)
- 03 | 합병 전 강원산업 외경
- 04 | 2000.05.04. 삼미특수강 인수계약 조인식



03

04





01

**현대자동차그룹
일원으로 새 출발,
INI STEEL로 사명 변경**

2000.09. / 2001.08.

인천제철은 2000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로 편입하며 새롭게 출발했다. 인천제철은 자동차 생산에 중요한 철강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 그룹이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루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어서 같은 해 8월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INI STEEL'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CI도 교체해 대내외에 선포했다.



02

- 01 | 2001.08.01. 회사명·CI 선포식
- 02 | 2001. 회사명·CI 선포 광고
- 03 | INI STEEL 본사 전경
- 04 | 2003.06. INI STEEL 창립 50주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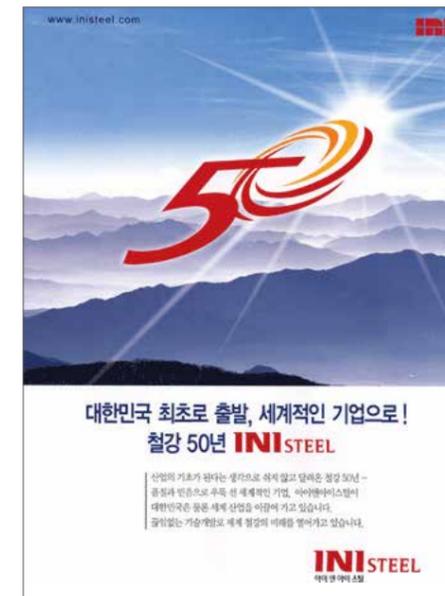


03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중장기적으로
2004년 경상이익률 25%를 달성하고
아울러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1.08.01. INI STEEL 회사명·CI 선포식 기념사 중

04



새로운 사명, INI STEEL의 의미

- ① 도전적인 자세로 남보다 앞서가는 '1(First)'이자 '1&1(First&First)'으로서 세계 1등을 향한 열망
- ② '나'를 의미하는 I와 기술혁신(Innovation), 통합(Integration), 정보(Information), 주주(Investor)를 의미하는 I와 두 개의 I를 연결하는 N(Network)으로, 인류를 더 행복하게 하는 문명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선도자
- ③ 한글 '아이앤아이'로, '아이'처럼 순수하고 투명한 기업
- ④ INI는 1+1, 즉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의 합병으로 양사의 공존 및 시너지를 통해 세계적 전기로 업체로 도약하자는 의지

INI STEEL



01



02

ATTACK21

운동

2002.~2004.

INI STEEL은 강원산업과 통합 이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ATTACK21' 운동을 추진했다. ATTACK21 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사고와 실행이 직원들의 의식 속에 내재화돼 조직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었다. 부문이나 공장 단위보다 전사적인 관점에서 수익성을 추구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문화를 정착시켜 근본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 ATTACK21 운동의 성과는 이후 한보철강 인수 및 정상화, 일관제철사업 추진의 밑거름이 됐다.

- 01 | 2002. 정몽구 명예회장, 인천공장 시찰(스테인리스 냉연공장)
- 02 | 2002.11.23. ATTACK21 실천 결의대회
- 03 | 2002.06.19. 무재해 100일 달성 및 200일 도전 선포식
- 04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전사적인 경영혁신활동 ATTACK21 실시 (2003.01.25 경영전략 워크숍)

03



04



한보철강 인수

2004.10.

INI STEEL은 현대하이스코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보철강 인수에 참여했다. INI STEEL이 A지구 철근공장과 미니밀공장·B지구 열연공장을, 현대하이스코가 B지구 냉연공장을 인수하는 내용으로, 이는 INI STEEL이 전체의 80%를, 현대하이스코가 20%를 인수하는 것이었다. 인수의향서 제출 후 한 달여 만인 2004년 5월, INI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7월 31일 본계약을 체결, 9월 24일 한보철강 채권단으로부터 최종 매각 승인을 확정받았다.

한보철강 인수로 INI STEEL은 기존 대비 500만 톤이 증가한 1295만 톤의 조강생산능력을 갖추며 세계 15위 철강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현대하이스코는 냉간압연능력 350만 톤 체제를 구축하며 국내 자동차 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01-02-03 | 2004.10.12. 한보철강 인수 합병식



02

03



01

INI컨소시엄은 조속한 당진공장 정상화 차원에서 2005년 상반기까지 A지구 열연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2006년 말까지 B지구를 포함한 당진공장을 정상화하겠습니다.

INI컨소시엄은 당진공장 정상화를 통해 통합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세계 초일류 철강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좌우명이기도 한 '일근천하무난사(一勤天下無難事)'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근면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세상만사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2004.10.12. 당진공장 인수 합병식 기념사 중



INI STEEL 당진공장 정상화 2005.~

한보철강 인수 이후 당진공장은 'INI STEEL 당진공장'으로 명명됐다. 당진공장 인수 당시 세운 마스터플랜을 기준으로 공장 정상화도 실천해 갔다. 2005년 3월 A지구 제1열연공장(A열연공장) 시험생산에 성공, 5월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2006년 8월에는 B지구 제2열연공장(B열연공장) 시험가동에 들어가 10월 상업생산을 시작하며 당진공장 인수 2년 만에 공장 전체의 완전 정상화에 성공했다. 2005년 9월에는 인도 철강업체인 에사르스틸(Essar Steel)과 코렉스 설비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설비 해체작업을 시작해 2006년 5월 해체를 완료했다. 해체한 설비는 2007년 2월 인도로 운송을 완료하며 1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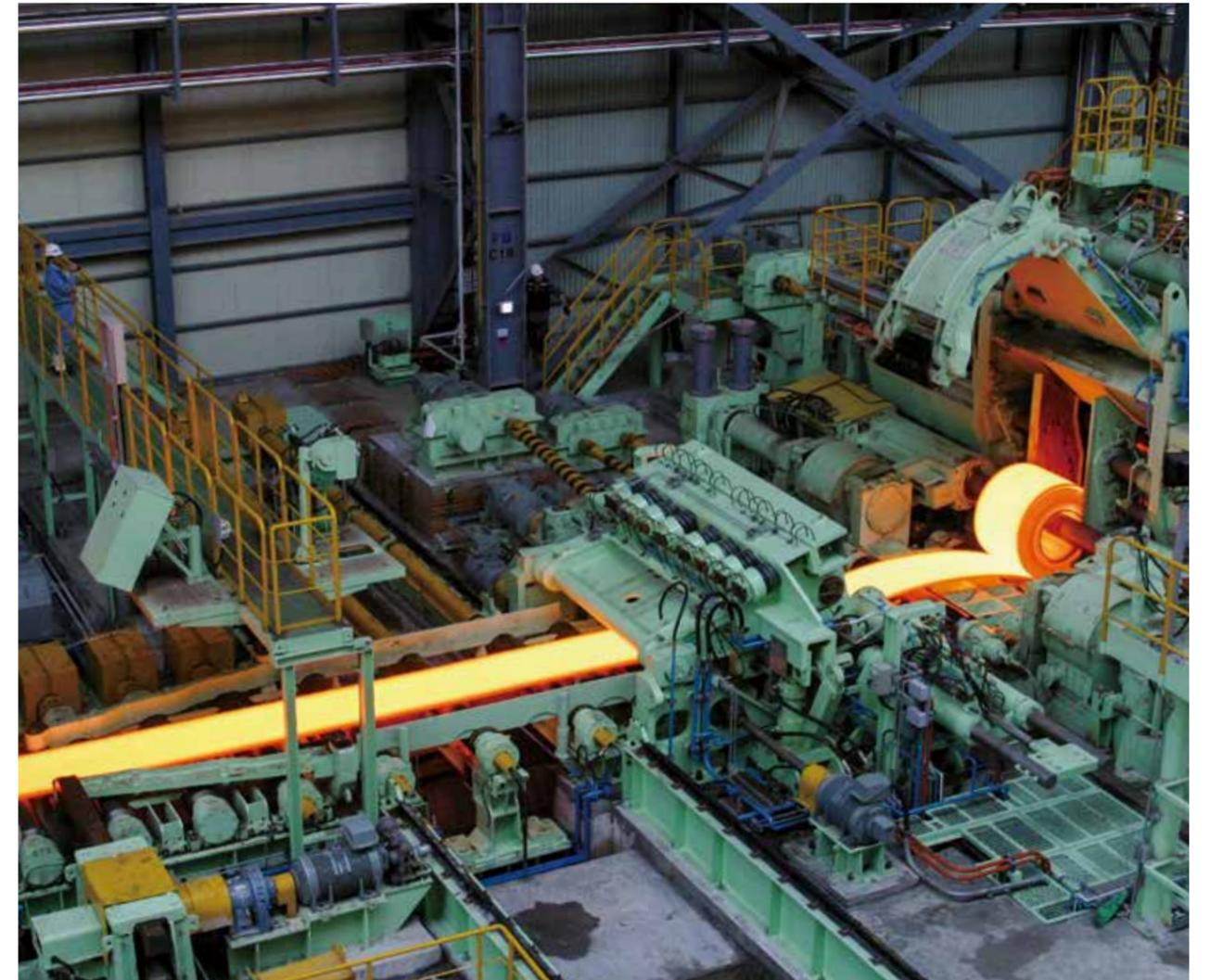


- 01 | 2005.01.03. 공장 정상화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 02-03 | 2005.05.02. 당진공장 정상화를 통한 열연강판 상업생산 및 출하
- 04 | 2006.05.01. 코렉스 설비 해체 작업
- 05 | 2006.08. B열연공장 생산 개시



04

05





01

**현대제철주식회사로
새 출범, 새로운 CI 선포**
2006.03.

INI STEEL은 강원산업, 삼미특수강, 한보철강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회사의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2006년 3월 '현대제철주식회사'라는 회사명과 CI를 선포하며 대내외에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현대제철이라는 회사명은 정주영 선대회장이 1977년 제철소 설립계획을 발표할 당시 구상했던 것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관제철소 진출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새로 제정한 CI의 'H'는 회사의 영문 첫 글자이자 'High Spirit(진취적 기상)', 'Harmony(조화)', 'Humanity(인류애)'를 상징한다.

02



현대제철(주)

現代製鐵(株)

01-02 | 현대제철 CI(2023년 현재)

03-04-05 | 2006.03.10. 현대제철주식회사로 회사명 변경, CI 선포식



03



04



05

당진제철소 전용부두를 통한 원료 초도 입하

2009.09.

2005년 4월 5만 톤급 부두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항만 개발을 시작, 2006년 9월 8일 개항했다. 1단계 공사에는 국내 최초로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공법을 적용했으며, 2단계, 3단계 공사를 거쳐 2009년 4월, 4개 선석 부두를 모두 완공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밀폐형 연속식 하역기 설치를 완료하며 원료 이동에서부터 친환경 제철소로 태어날 준비를 마쳤다.

2009년 8월 23일, 당진제철소 전용부두로 고로 가동을 위한 최초의 원료를 실은 선박이 입항해 9월 8일 하역을 시작했다. 세계 최대 철광석 공급업체인 브라질 발레(Vale)로부터 적철광 17만 톤을 공급받았으며, 한진해운 소속의 18만 톤급 '아난겔 해피니스(Anangel Happiness)'호에 선적해 입항했다.



- 01 | 2009.08.23. 당진제철소 전용부두를 통해 최초로 제철원료 선적 선박 입항
- 02 | 2007.06.26. 현대제철, 당진에 국내 최대 부두 건설 기사(동아일보)

당진은 당나라를 오가던 큰 나루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
삼국시대부터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했던 곳이다.
현대제철의 부두가 완공되면
이곳은 새로운 해상운송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다.

-2007.06.26. 현대제철, 당진에 국내 최대 부두 건설 기사 중(동아일보)





- 01 | 원료 하역 전용부두와 연속식 하역기
- 02 | 2009.08. 원료 초도 입하 광고
- 03 | 2010.01. 준공 후 항만 전경



02



03



01

**세계 최초 밀폐형
원료저장시설 준공**
2009.09.

현대제철은 세계 최고의 친환경제철소를 건설한다는 방침으로 기존 제철소들과는 달리 비산먼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을 고안해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밀폐형 원료저장시설을 개발했다. 2007년 7월 2일 착공식을 갖고 철광석 저장용 원형 원료저장시설 7동과 유연탄·부원료 등의 저장용 선형 원료저장시설 7동 등 총 14동을 건설했다.

01 | 밀폐형 원료저장창고 내부
02-03-04 | 밀폐형 원형 원료저장시설 건설현장
(2008.08. / 2008.11. / 2009.06.)



02



03
04



**일관제철소 준공,
고로시대 개막**
2010.04.

현대제철은 2006년 10월 일관제철소 기공식을 갖고 고로 건설을 시작했다. 2010년 1월, 마침내 1고로 화입과 첫 출선이 무사히 이뤄지자 4월 8일 일관제철소 준공식을 통해 글로벌 종합철강회사로의 도약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같은 해 11월 2고로와 2013년 9월 3고로까지 완공하고 국내 최초 민간 일관제철소 출범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초의 자원순환형 사업구조를 완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 01 | 2006.10.27. 일관제철소 기공식
- 02 | 2010.01.05. 제1고로 화입식에서 정몽구 명예회장
- 03 | 2010.11.23. 제2고로 화입식



02

01

03



당진 일관제철소는 17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연간 24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더불어, 80억 불 상당의 수입대체 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세계 철강시장에서, 새롭고 능동적인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현대제철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2010.04.08.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준공식, 정몽구 명예회장 환영사 중



01
02

- 01-03 | 2010.04.08.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준공식
- 02 | 2013.09.14. 제3고로 첫 출선
- 04-05 | 2010.11.24. 제2고로 첫 출선



04

03



05



| 당진제철소 1~3고로 야경



설비 건설과 확장으로 변화하는 당진제철소 전경

| 2007.09.



| 2008.08.



| 2009.09.



| 2010.02.



| 2013.02.



| 2014.05.



현대제철 최초, 최고의 기술과 제품

서울신문
현대제철, 전기로 '210mm 슬래브' 생산

2007년 06월 12일 021면
 B도교제철 이어 세계 두번째
 "2010년 이후 품질안정화 기여"

현대제철이 전기로(電氣爐) 제강 방식을 통해 210mm 두께의 슬래브(鋼板) 생산을 시작한 후 후련의 소재로 사용되는 철강판(鐵板) 생산에 성공했다.

현대제철은 11일 충남 당진공장 A영연공장에서 박승아 사장 등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연구실비 준공식을 갖고 210mm 두께의 자중지강판 소재용 슬래브 생산(사판)에 본격 돌입했다.

정기적으로 이 정도 두께의 슬래브를 생산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세계에서도 일본 도리제철에 이어 두번째다. 전기로에서는 주로 100mm가 나오고 있다. 포스코는 고로 방식으로 이보다 두꺼운 200mm의 슬래브를 생산한다.

박 사장은 "슬래브 생산(사판)이 실지를 시작한 지 불과 6개월만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생산 개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제강-연주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쇠물에서부터 용해공정까지 생산하는 일관제철공정을 2010년 1기 고로 완공 전에 일괄적으로 완공해 라의 시설을 2010년 이후에 공회, 즉 제강, 연주, 연정공정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이 공정은 2010년까지 이

에 준공된 연주설비를 통해 다양한 슬래브를 생산기로 했다. B영연공장에서도 가형으로 앞안양역 등 각종 대리니를 속속 개척하다.

박 사장은 "올해부터 2년 동안 속제강 도입기술을 2010년 이후 일관제철공정에 비로 적용할 경우 일관제철소 조기에 정상화 및 생산제품의 품질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용규기자 ycho@seoul.co.kr

01

- 01 | 2007.06.12. 현대제철, 전기로 210mm 슬래브 생산 기사(서울신문)
- 02 | 2007.06.11. 슬래브 첫 생산
- 03 | 2007.12.21. 경영혁신·기술개발로 일류상품 최다 보유 기사(파이낸셜뉴스)
- 04 | 2009.12.01. 후판공장 초도 생산
- 05 | 2010.04.12.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조선용 후판 초도 출하

02



현대제철, 글로벌 철강관 도약

세계 최고 강관인 에라카

경영혁신·기술개발로 일류상품 최다 보유

현대제철은 2007년 11월 11일, 1차 '경영혁신'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1차 '경영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현대제철은 '경영혁신' 성과를 발표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현대제철은 '경영혁신' 성과를 발표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현대제철은 2007년 11월 11일, 1차 '경영혁신'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1차 '경영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현대제철은 '경영혁신' 성과를 발표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현대제철은 '경영혁신' 성과를 발표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03



04



05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대도약

현대제철은 연산 1200만 톤의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현대하이스코와 합병하며 글로벌 철강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췄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로서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를 실현하는 한편, 나아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초의 자원순환형 사업구조'를 갖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기반을 마련했다.

2014~2018

Chapter. 1

철강산업 부흥과
경제성장 초석
1953~1977

Chapter. 2

현대의 철강사업 의지와
도약의 계기
1978~1999

Chapter. 3

일관제철소 건설과
세계 최초 자원순환형 그룹 완성
2000~2013

Chapter. 5

다음 세대를 위한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
2019~2023

100년 안전문화관 개관

2015.04.

현대제철은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다짐과 안전문화 가치 제고를 위해 2015년 4월 15일 당진제철소 내에 '100년 안전문화관'을 개관했다. 안전문화관은 가상 안전체험영상 시청, 3D영상 체험 등 9개 체험관으로 구성됐다. 안전문화관은 현대제철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및 방문객들에게 안전 체험 또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29일에는 '고위험 안전체험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01



02

01-02-03 | 100년 안전문화관 내외부

04 | 2015.04.15. 100년 안전문화관 개관

03



04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 비전 선포

2015.07.

2015년 7월 14일, 현대제철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종합 소재 기반의 가치창출 기업을 향한 미래의 청사진으로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Engineering the Future beyond Steel)’라는 비전을 통해 글로벌 철강기업을 넘어 비철 및 비금속 분야까지 제품과 시장의 영역을 확장해 갈 것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01-02 | 2015.07.14. 비전 선포식



02

01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라는 새로운 비전은
지금껏 누구도 만들지 못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우리 의지의 반영입니다.
비전을 달성하고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합시다.

- 2015.07.15. 현대제철 비전선포식 기념사 중

비전 2025 미래상

철

철은 현대제철의 정체성이며, 미래 사업환경에서도 핵심 기반임을 강조합니다.

그 이상의
가치

경쟁자와 고객의 기대를 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함을 의미합니다.

창조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과거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현대제철의 의지입니다.

국내·외 기술박람회 개최 및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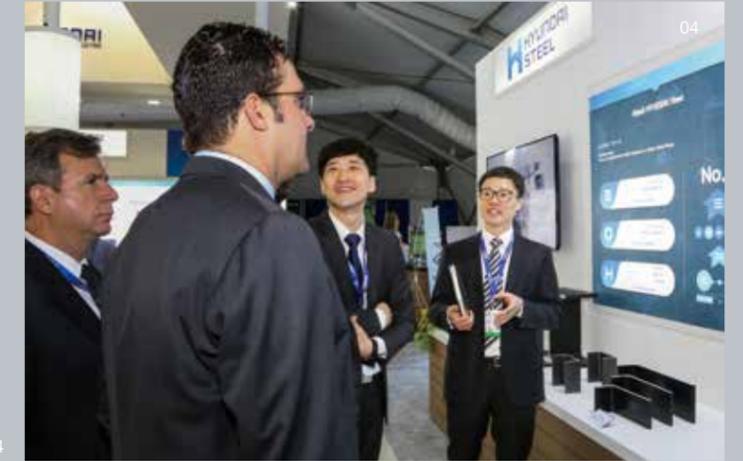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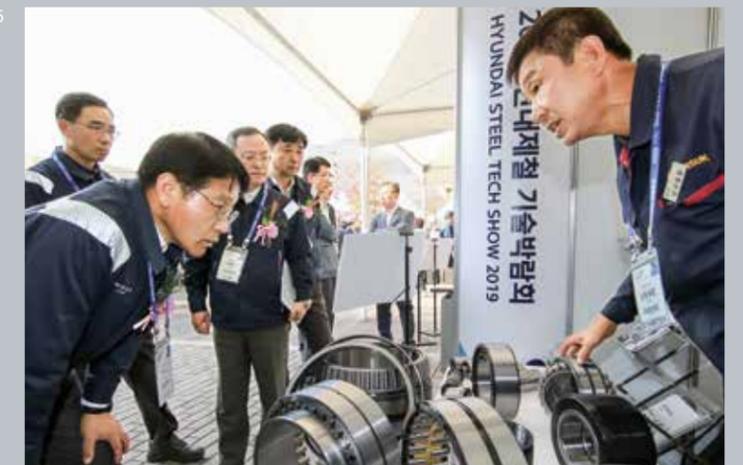


- 01 2015.05.04. 2015 세계해양기술박람회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참가
- 02 2016.05.02. 2016 세계해양기술박람회 참가
- 03 2016.10.19. 제1회 기술박람회(당진제철소 안전문화관)
- 04 2017.05.01. 2017 세계해양기술박람회 참가
- 05-06 2019.10.22. 2019 현대제철 기술박람회



04

05



06



현대하이스코 합병

2015.07.

2015년 7월 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완전합병했다. 2013년 12월 현대하이스코 냉연부문 분할합병에 이은 후속조치였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자동차경량화, 강관 등에 대한 사업다각화와 해외 SSC(Steel Service Center)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경영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 01 | 현대하이스코 당시 냉연공장 외경
- 02 | 현대하이스코 냉연공장 내부(현 2냉연공장)
- 03 | 2010.04. 합병 전 당진제철소 내에 위치한 현대하이스코(현 1냉연공장)



01



02



03



01



02

특수강공장 준공

2015.10.

현대제철은 2014년 4월 특수강공장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최종 완공하고, 같은 해 11월 시운전을 시작했다. 2016년 3월에는 산업용 제품에 대한 KS 인증을 취득했으며, 6월에는 시생산 돌입 후 6개월 동안 생산 실적과 제품 수준의 검증으로 JIS 인증을 취득하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

- 01 | 당진제철소 특수강공장 내부
- 02 | 2014.04.08. 특수강공장 기공식 및 안전선포식
- 03 | 2015.11.17. 특수강 고객사 초청 간담회
- 04 | 2016.05.02. 특수강공장 특수강 봉강 제품 초도 출하

03



04



고객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고객초청 행사



01



02



03

04

01 | 2016.05.25. 해외바이어 초청행사 GCC(Global Customers Convention)

02 | 2017.05.24. 해외바이어 초청행사 G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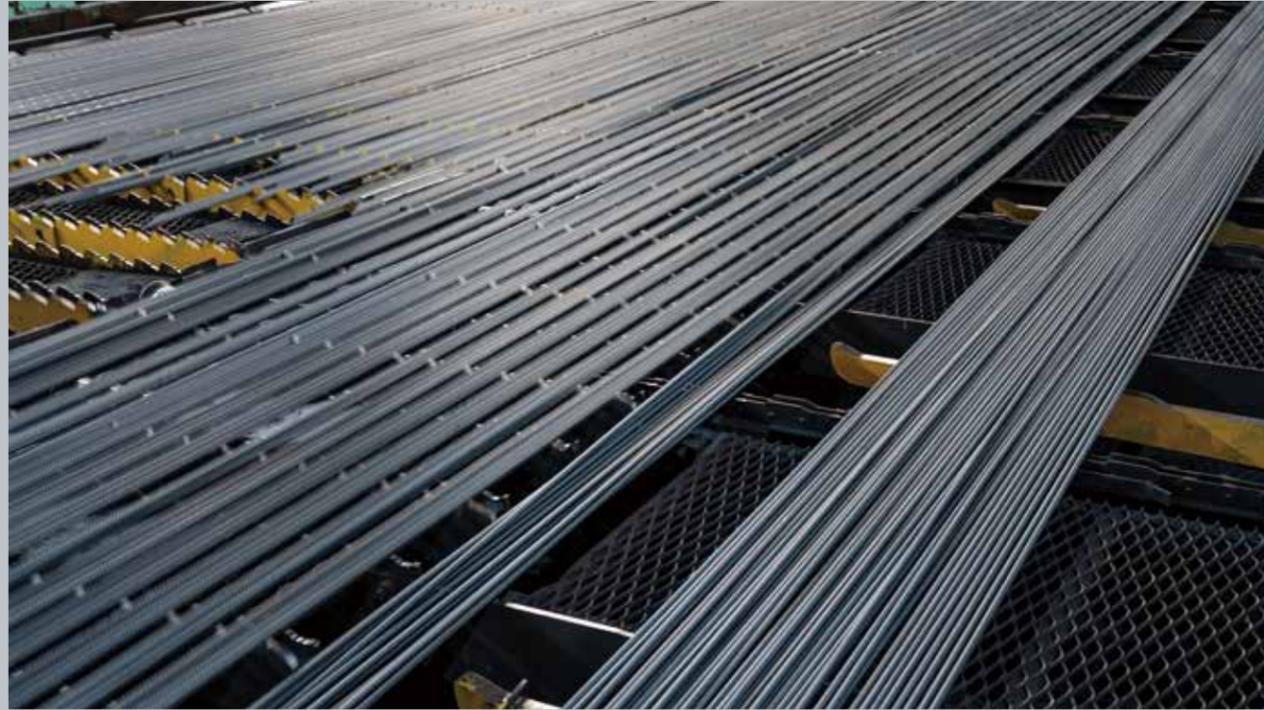
03-04 | 2019.05.21. 해외바이어 초청행사 GCC

05 | 2016.10.15. 고객초청 한마음 체육대회



05

현대제철의 최초, 최고 기술



01

- 01 | 2016.09. 국내 최초 SD500 및 SD600 내진용 철근 개발
- 02 | 2016.10. 국내 최초 초고강도 H형강 개발
- 03 | 2016.07.15. 조선용 후물 소질보증 TMCP재 초도 출하
- 04 | 2017.02. 나사형철근 선조립 공법 신기술 인증 취득
- 05 | 2017.02. 세계 최고 성능 BCA 보증 후판 한국선급 인증 취득
- 06 | 2018.11.23. 세계일류상품 선정, 업계 최다 보유 (자동차용 핫스탬핑 외, 총 12개 제품 선정)



04



05

02



03



06

수소공장 산업생산 개시

2016.01.

현대제철 수소공장은 수소 중의 수소인 '파이브나인(Five9)'이라고 불리는 고순도의 수소 4600Nm³/h (3400톤/년)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돼 2016년 2월 시험생산을 시작했다. 2021년 4월에는 인근에 수소출하센터가 건설돼 수소사업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 01 | 2021.04.26. 당진 수소출하센터 준공식
- 02 | 당진 수소충전소
- 03 | 수소공장 전경(2023년 현재)



02

01



'세계 최초의 친환경 제철소를 만들자는 목표 아래 제철소가동 시점부터 10년 동안 자원순환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해 이를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회사는 더욱 높은 목표 아래 진일보하여 수소생산 및 친환경에너지 부문에 기업의 역량을 다해 참여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친환경제철소를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안동일 사장이 발표한 수소사업 관련 비전 중



03

현대제철 제품별 브랜드 출시

2017.~

현대제철은 2017년 11월, 국내 최초 내진용 철강재 전문 브랜드 'H CORE'를 출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2019년 4월에는 자동차용 철강 솔루션 브랜드 'H-SOLUTION'과 11월 내마모강 판재 브랜드 '웨어렉스(WEAREX)', 2020년 9월 고강도강 자동차강판 브랜드 '울트렉스(ULTREX)'를 출시하며 프리미엄 제품 이미지를 강화했다. H CORE는 2022년 9월, 토목·건축·플랜트 등 건설 전 분야의 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후판·강관·열연 강판·냉연 강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리론칭한 것이었다.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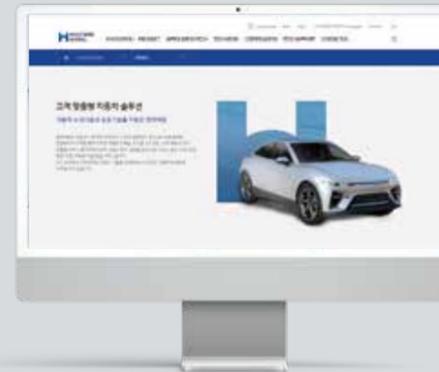
- 01 | 2017.11.01. 내진 강재 브랜드 H CORE 론칭
- 02 | 2018.02.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한동대학교에 내진강재 H CORE 지원
- 03 | 2019.04.16. 전기차 콘셉트카 'H-SOLUTION EV' 공개(상하이모터쇼)
- 04 | H-SOLUTION 홈페이지 'AE서비스 포털'
- 05 | H CORE 브랜드 광고

자동차 솔루션 전문 브랜드 'H-SOLUTION'

'H-SOLUTION'은 미래 자동차 소재시장에서의 우위 선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대제철이 출시한 고객 맞춤형 자동차 솔루션 브랜드이다. 2020년 1월에는 회사 홈페이지 내에 H-SOLUTION 홈페이지인 'AE서비스 포털(<http://ae.hyundai-steel.com>)'을 오픈했다.



04



내진용 전문 철강재 'H CORE'

H CORE는 국내 최초 내진용 철강재 전문 브랜드로, 2017년 11월 현대제철이 건축물의 안전가치를 높이기 위해 출시했다. H CORE는 '현대제철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중심(CORE)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진의 충격을 흡수해 지각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일반강재 대비 높은 에너지 흡수력·충격인성·용접성 등의 특성을 지녀 이를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외부 충격으로부터 거주자의 안전도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05



내마모강 브랜드 웨어렉스 론칭

2019년 11월 현대제철이 론칭한 'WEAREX(웨어렉스)'는 기존 제품 대비 경도 및 가공성이 크게 향상된 내마모강 판재 브랜드이다. WEAREX는 WEAR+Resistant+EXcellent 단어를 조합해 '외력에도 닳지 않는 철'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차량의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등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기계 및 일반 산업용 등 다양한 산업제품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충격에 강한 자동차강판 울트렉스 론칭

2020년 9월 새롭게 론칭한 '울트렉스(ULTREX)'는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소재에 걸맞은 고강도강 브랜드로, '외부 충격에 강한 단단한 철'이라는 뜻이다. 자동차 내외판, 구조재 및 새시 부품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고강도강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었다. 울트렉스는 센터 필러, 프런트 범퍼빔 등 자동차 주요 부위에 쓰이는 31종을 포함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

2019년 말부터 세계 전역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는 극심한 침체를 겪었다. 한편 이 시기에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한 친환경과 탄소중립 이슈에 대응해 현대제철은 조직 및 생산체제 개편, 새로운 기술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현대제철은 '지속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Chapter. 1

철강산업 부흥과
경제성장 초석
1953~1977

Chapter. 2

현대의 철강사업 의지와
도약의 계기
1978~1999

Chapter. 3

일관제철소 건설과
세계 최초 자원순환형 그룹 완성
2000~2013

Chapter. 4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대도약
2014~2018



01



02

조직문화 혁신

2020.~

현대제철은 2020년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인 조직문화 혁신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2019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무환경에 변화가 불가피해졌고, 특히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강조되면서 '안전'과 '환경'이 최우선 가치로 강조됐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시대적 화두에 충실하는 한편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기업체질 강화와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새로운 전략방향을 세워 실천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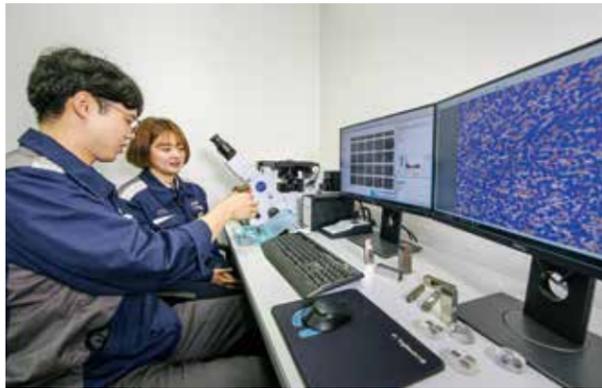
03



04



- 01 | 2020.04.10. 종이 없는 업무 시스템 도입
- 02 | 2021.03.17. PI 3단계 Kick-Off 보고회
- 03 | PI 홍보영상
- 04 | 2021.04.01. 사업부제 출범



01
02

03



2020.12.22. 세계 최초 고로 유해가스배출 원천차단기술 개발
현대제철은 고로 정기보수 후 고열의 바람을 다시 불어넣는 재송풍 작업 시 가스청정밸브인 '1차 안전밸브'를 통해 고로 내부에 남아있는 유해가스를 정화 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 01 | 2020.04.27. 120톤 전기로에 빅데이터 기반 원료 운영 최적화 시스템 구축 (인천공장)
- 02 | 2020.02. 스마트 엔터프라이즈 기초 교육과정인 스마트 아카데미(포항공장)
- 03 | 2021.10. 임직원 대상 사내 기술지식 공유 플랫폼 '오픈'
- 04 | 2020.12.22. 세계 최초 고로 유해가스배출 원천차단기술 개발

현대제철은 '지속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라는 경영방침 속에서 탄소중립 기반 구축, 미래 전동화 중심 사업재편, 국내외 사업 거점 특화라는 세 가지 전략방향의 구현을 통해 글로벌 철강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전기, 수소 등 동력에너지 전환의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시대적 소명에 충실함을 물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2022. 통합보고서 (Beyond Steel) CEO 메시지 중



01
02



05

03



04



- 01 | 2020.04.28. 기후변화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원자재부문 수상
- 02 | 2020.06.24. 제1회 ESG 실장협의체
- 03-04 | 2021.02.22. 2020년 통합보고서, 미국 LACP 비전어워즈 금상 수상(2020.07.09. 발간)
- 05 | 2021.06.24. 업계 최초 디지털 기반 통합보고서 비온드스틸(Beyond Steel) 발간
- 06 | 2020.11.30.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전 사업장)

06





01

- 01 | 2022.07. 초등학교 대상 행복 키움 교육기부 '2022년 행복 키움 교실' (당진제철소)
- 02 | 2018.04.01. 어르신 정수사진 촬영 봉사활동(포항공장)
- 03 | 2022.10.08.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 및 봉사활동(순천공장)
- 04 | 2022.10.04. 지역사회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가을운동회(포항공장)
- 05 | 2020.11.28. 청소년 대상 '현대제철 방구석 드림톡콘(Dream Talk Concert)'
- 06 | 2022.09. 관내 경로당 방문, 위문품 전달(울산공장)
- 07 | 2022.06.18. 가족봉사단 해피프리즘, 고령농가 일손돕기(당진제철소)



03



02



06
07



04
05





01

키자니아 현대제철관 오픈
2019.07.

현대제철은 글로벌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 서울점에 현대제철관을 오픈했다. '철강신소재 연구소'로 명명된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이 철의 원료인 철광석과 석탄을 직접 만져보는 체험이 가능하다. 2022년 9월에는 키자니아 서울점 체험관을 리뉴얼했다. 특별히 '친환경 제철소' 체험관으로 개편해, 철의 우수한 친환경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친환경 제철소 체험관은 친환경 차체 연구 구역, 주행 테스트 구역, 철강 컨트롤센터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 01-04 | 2019.07.18. 키자니아 현대제철관 오픈
- 02 | 키자니아 현대제철관 리뉴얼 오픈 기념 퀴즈 이벤트
- 03-05 | 2022.09. 키자니아 친환경 제철소 체험관 리뉴얼 오픈



02

04



03

05

설비강건화 활동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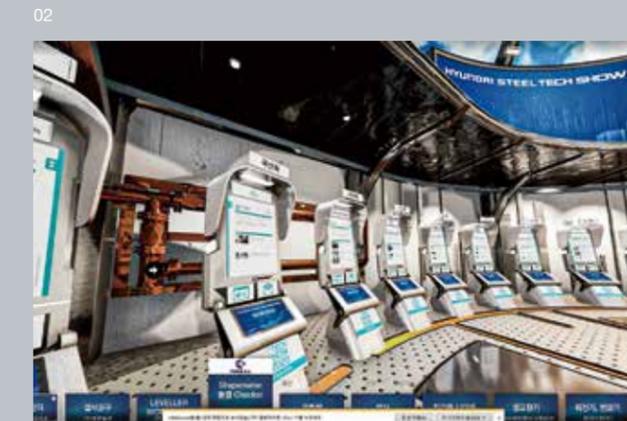
- 01 | 2020.06.26. 설비강건화 전사 1호 명소 인증(순천공장)
- 02-03 | 2022.07.20. 설비강건화 활동 명소 인증
(당진제철소 냉연생산1부 1냉연 TCM)



국내·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 01 | 2022.06.19.-23.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SCT 2022(Steel in Car and Truck 2022) 참가
- 02 | 2020.11.11.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현대제철 기술박람회'
- 03 | 2020.12.02.-10.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을 온라인으로 선보인 'H-Solution Technical Conference'



H-Solution Technical Conference 2020

DATE/TIME
 • Wednesday, December 02, 2020 | 07:00 GMT | 16:00 KST
 • Thursday, December 03, 2020 | 07:00 GMT | 16:00 KST
 • Wednesday, December 09, 2020 | 07:00 GMT | 16:00 KST
 • Thursday, December 10, 2020 | 07:00 GMT | 16:00 KST

Presentation
 • Automotive wheel assembly trend
 • Introduction of H-SOLUTION
 • Automotive Application Engineering Technology
 • New Concept of Automotive steel development

Registration
 HYUNDAI STEEL
 1st online conference
 20.12.02 (WED) ~20.12.10 (THU)
 16:00(KST, Seoul) | 15:00(CST, Beijing)
 08:00(CET, Berlin) | 13:00(CST, New Delhi)

View conference page in H-SOLUTION webpage
<http://www.hyundai-ste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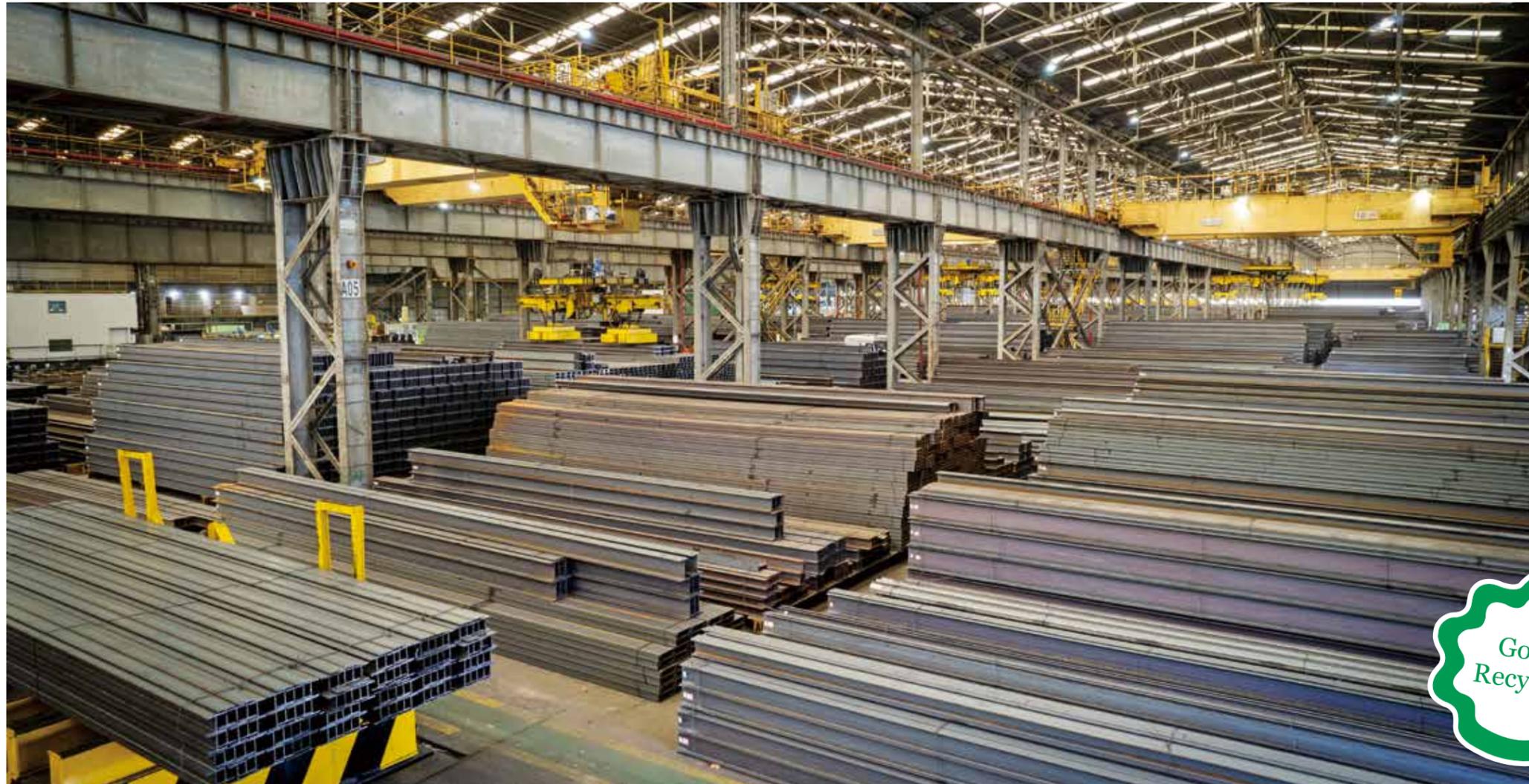
02

03

철강업계 최초 형강·철근 GR인증 획득 2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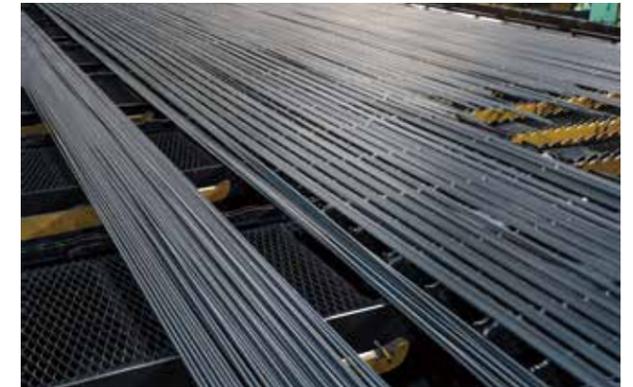
2020년 8월, 철강업계 최초로 GR(Good Recycled Product, 우수재활용 제품)인증을 취득했다. GR인증은 우수한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형강 및 철근 등이 대상 품목에 속한다. 현대제철은 '철스크랩'을 재활용해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형강 및 철근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과정에서도 고로 방식과 비교해 CO₂ 및 폐기물 배출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2021년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모든 제조방법의 건축구조용 강관에 대한 KS인증을 취득했으며, 2022년 11월에는 450MPa급 구조용 강관에 대한 KS인증을 취득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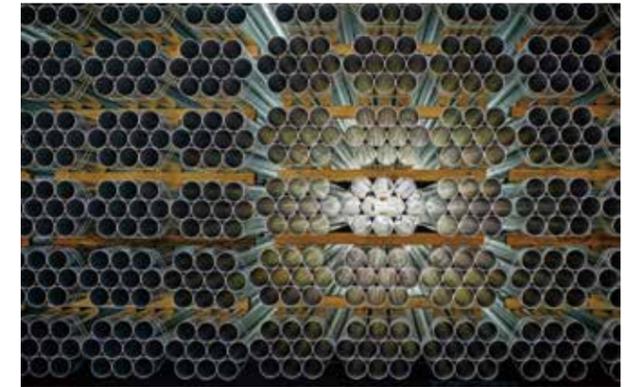


05

- 01-02 | GR인증을 획득한 H형강, 철근
- 03 | 건축구조용 강관
- 04 | 2020.07.01. 형강, 봉강에 대한 GR 인증서
- 05 | 우수재활용 제품을 상징하는 GR마크



02



03



04

극저온용 후판 개발

2021.02.

현대제철은 영하 196℃의 극저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9% Ni 후판을 개발했다. 2018년 9월, 9% Ni 후판 신강종에 대한 개발에 착수해 이듬해 3월 안정적인 품질 수준을 확보했으며, 12월 개발을 완료했다. 2020년 2월에는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LNG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연료탱크용 소재로 사용하기로 협의하고 6월 공급을 시작했다.

2020.09.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운전



친환경 자동차용 1.5GPa MS강판 개발

2022.01.

2022년 1월 현대제철이 개발한 1.5GPa MS 강판은 기존에 개발된 동일 규격 강판 대비 평탄도 및 내균열 성을 대폭 개선한 제품이다. 차체 경량화에 도움을 줘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고, 차체 충돌 내구성을 강화해 외부 충격시 탑승자와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제철 강판을 적용한 전기차 콘셉트 보디(EV Concept Bo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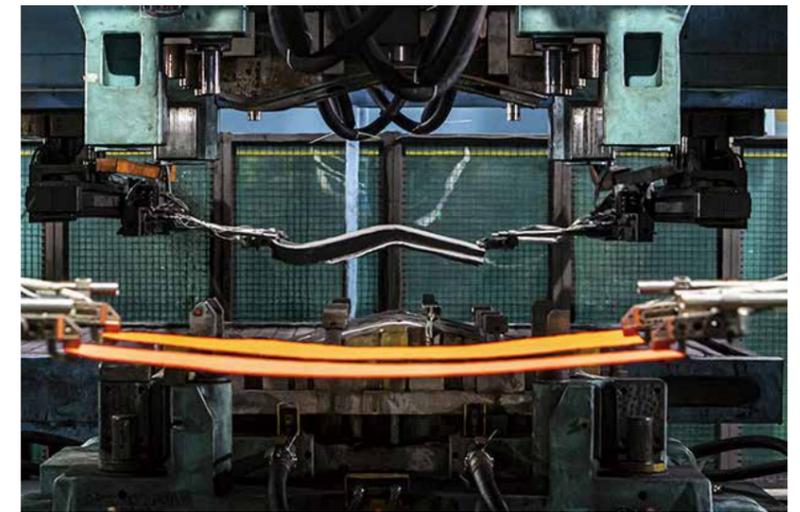
01

**세계 최초 1.8GPa
초고강도 핫스탬핑
강판 양산**

2022.02.

2020년 7월 17일, 현대제철은 국내 최초로 핫스탬핑 공정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아르셀로미탈과 특허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용 핫스탬핑 사업의 성장은 물론 고부가치량경량화제품의 해외시장 확대 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2022년 2월에는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기초소재연구센터와 함께 1.8GPa 프리미엄 핫스탬핑강을 개발,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 1.8GPa 초고강도 핫스탬핑강은 차량을 가볍게 하면서 자동차 충돌 시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한 초고강도 핫스탬핑강은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전기차인 제네시스 일렉트릭파이드 G80(G80EV)과 신형 G90에 사용되고 있다.

- 01 | 1.8GPa 초고강도 핫스탬핑강이 적용된 G80EV
- 02 | 핫스탬핑 설비
- 03 | 2022.02. 세계 최초로 1.8GPa급 초고강도 핫스탬핑 강판 개발
- 04 | 초고강도 핫스탬핑강이 적용된 Electrified G80, G90



02

03



04



01

원료 운송에 친환경 LNG 추진선 첫 투입

2021.11.

현대제철은 2019년 5월 원료 운송에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LNG 추진선은 기존의 고유황 선박유와 비교했을 때 황산화물(SOx), 질산화물(NOx) 등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각각 90·90·30% 이상 줄이고, 연료 효율은 30% 이상 높이는 효과가 있다. 현대제철은 그 시작으로 2021년 11월 24일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에이치엘 오서닉호(HL Oceanic)'를 성공적으로 인도, 출항시켰다. 에이치엘 오서닉호는 우리나라와 호주를 오가며 연간 200만 톤의 철광석과 석탄을 운송하게 된다.

- 01 | 2021.11.24. 원료 운송에 투입한 최초의 LNG추진선 에이치엘 오서닉호(HL Oceanic)
- 02 | 2022.04.19. 국내 최초 LNG 저장탱크 건설에 필요한 초저온 철근 인장시험 설비 도입



02



현대제철은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로봇 '스팟(SPOT)'을 활용해 산소가스 밸브를 여닫거나 일상 안전점검을 진행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스팟을 투입해 화재, 폭발 등 2차 재해도 예방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AI 기술을 접목한 가스센서와 카메라 등을 부착해 스팟의 현장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156개 가스시설과 2927개의 제한 구역에 스팟을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세계철강협회 안전보건 우수사례 선정

- 01-03 | 2022.10.18. 4족 보행로봇 '스팟(SPOT)'으로 세계철강협회 안전보건 우수사례 공모전 공정안전부문 최우수상 수상
- 02 | 2022.09.13. 세계 최초 전기로를 통한 1.0GPa급 고급 판재 시험 생산 및 부품 제작 성공
- 04 | 2022.11.24. 압력용기용 강관 세계일류상품 선정



03



**현대제철의 세계일류상품
(18년 연속 업계 최다 보유)**

- 2001. | H형강, 열간압연원심주조공구강롤
- 2005.~2011. | H형강, 열간압연원심주조공구강롤, 무한계도, 부등변부등후앵글, 강널말뚝
- 2012.~2016. | H형강, 열간압연원심주조공구강롤, 무한계도, 부등변부등후앵글, 강널말뚝, ERWP110유정용강관
- 2017.~2018. | H형강, 열간압연원심주조공구강롤, 무한계도, 부등변부등후앵글, 강널말뚝, ERWP110유정용강관, ERW산업용보일러관
- 2018.~2019. | H형강, 열간압연원심주조공구강롤, 무한계도, 부등변부등후앵글, 강널말뚝, ERW P110 유정용강관, ERW산업용보일러관, 평행채널, 자동차용핫스탬핑, ERW J55 유정용강관, ERW L80 유정용강관
- 2019.~2022. | H형강, 열간압연원심주조공구강롤, 무한계도, 부등변부등후앵글, 강널말뚝, ERW P110 유정용강관, ERW산업용보일러관, 평행채널, 자동차용핫스탬핑, ERW J55 유정용강관, ERW L80 유정용강관, ERW 도어임팩트빔
- 2022.~2023. | H형강, 열간압연원심주조공구강롤, 무한계도, 부등변부등후앵글, ERW P110 유정용강관, ERW산업용보일러관, 평행채널, 자동차용핫스탬핑, ERW J55 유정용강관, ERW L80 유정용강관, ERW 도어임팩트빔, SAW A671·A672 압력용기용 강관



04

대한민국 양궁 발전을 선도하는 현대제철 남자양궁단

현대제철 남자양궁단은 1993년 창단됐다. 오진혁 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남자양궁 최초로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했고 한국 남여 양궁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 5회 연속 출전하는 쾌거를 이뤘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는 구본찬 선수가 한국 남자양궁 최초로 2관왕을 차지했고,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국가대표 8명 중 5명이 현대제철 선수들로 구성되기도 했다. 2021년 도쿄올림픽 남자 단체전 금메달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남자단체전 금·동메달 획득, 2022년 양궁 월드컵 3차 대회 남자 단체전 우승 등 우리나라 양궁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2023년 5월 현재 한승훈 감독과 구본찬·김종호·김필중·오진혁·이승신·최용희·한재엽·허재우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01

02



- 01-02 | 2016.08. 남자양궁단 리우올림픽 출전
- 03 | 현대제철 남자양궁단 로고
- 04 | 2022.06.26. 오진혁 선수, 파리 양궁 월드컵 단체전 금메달 획득
- 05-06 | 2016.07.07. 남자양궁단 훈련장 준공



03

04

05

06



현대제철 여자축구단 레드엔젤스, WK리그 10연패 달성 2022.12.

현대제철 여자축구단 레드엔젤스가 2022년에도 WK리그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레드엔젤스의 WK리그 우승 기록은 2013년부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10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여자 축구단 전용 클럽하우스를 마련했다. 클럽하우스는 연면적 4000㎡,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실내 축구장 및 시청각실, 휴게실, 의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레드엔젤스는 2023년 현재 김은숙 감독, 박영클·이광석·정상남 코치, 이주한 경기분석관, 김은명·이선희 의무트레이너와 강채림·고유진·김도연·김민정·김성미·김정미·김혜리·남궁예지·문하연·백진주·성서울서라벌·손화연·엔게사·오연희·요코·윤혜인·이네스·이덕주·이민아·이세은·이소희·임선주·장슬기·장창·정설빈·최유리·최유정·홍해지 선수가 소속돼 있다.

01



- 01 | 2020.11.16. 2020 WK리그 챔피언결정전 우승
- 02 | 현대제철 레드엔젤스 로고
- 03 | 현대제철 레드엔젤스 클럽하우스(2020년 준공)
- 04 | 2015.11.09. WK리그 최초 3년 연속 통합 우승
- 05 | 2022.12.05. WK리그 통합 10연패 축승연



02

03

04

05





01
02
03



04

판교오피스 입주

2023.01.

2023년 1월 1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그레이츠판교에 서울 통합사무소인 '판교오피스'를 마련했다. 그동안 서울 시내 3개 지역에 분산돼 있던 사무실을 통합해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완전 자율좌석제 시행 등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01-02-03-04 | 판교오피스



- 01-02 | 2023.02.09. 전사 경영전략워크숍
- 03 | 2023.04.23. 탄소중립 로드맵 'Pathway to Green Steel' 발표
- 04 | 2023.03.07. 제2회 AI·BIG DATA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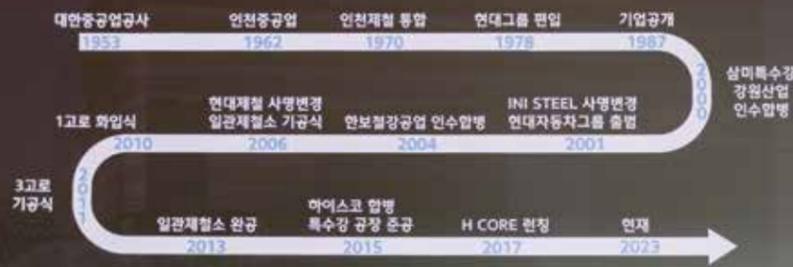
우리는 탄소중립 시대에 무한대로 가는 '철강 순환 사이클'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슬로건이 되어 합니다. 철강 순환 사이클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내는 지속가능한 철강사가 되어 합니다. 건강한 기업문화 조성,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이것이 오늘 토론하는 3대 축입니다. 오늘이 창사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100년 제철소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강한 도전정신으로 불확실성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껏 땀시다.

- 전사 경영전략워크숍에서 안동일 사장 키노트 발표 중



Since 1953. 창립 70주년

재도약을 준비하는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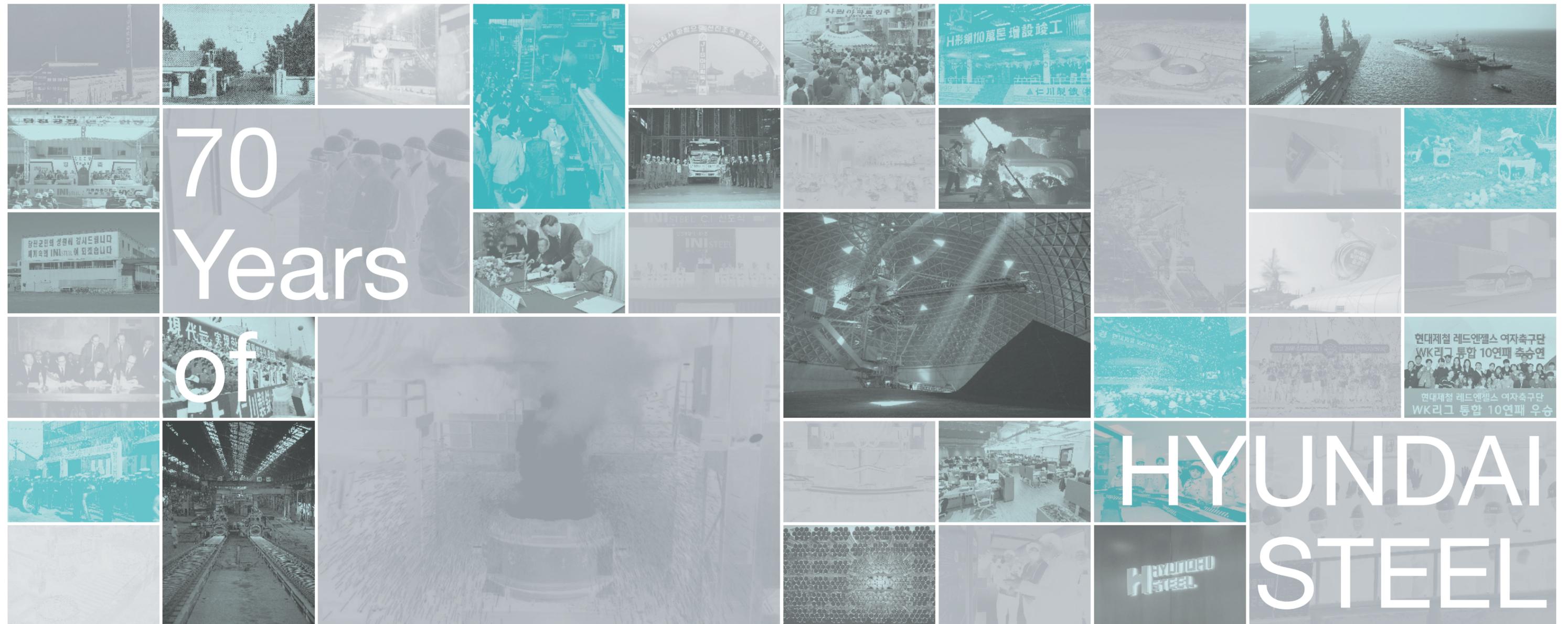
2023.02.09. 전사 경영전략워크숍 개최

현대제철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임원 및 각 부문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탄소중립 대응, 미래성장동력 확보, 기업문화 조성 등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현대제철 창립 70주년

2023.06.

2023년 6월 10일, 현대제철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했다. 현대제철은 1953년 대한중공업공사로 출범해 우리나라 철강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특히 한보철강 인수에 이어 일관제철소를 준공하며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자원순환형 그룹'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제 세계 일류의 기술력과 제품으로 고객에게 미래 100년을 약속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철강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HYUNDAI STEEL's Today

사진으로 보는 현대제철의 오늘



현대제철 국내 사업

HYUNDAI STEEL's DOMESTIC BUSINESS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회사, 2010년 민간기업 최초의 일관제철소 완공 등
현대제철이 걸어온 길은 한국 철강산업의 역사이자 이정표가 됐다.

전기로에서 고로로, 인천공장에서 당진제철소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철의 무한한 가능성을 구현하며 세계 최고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춘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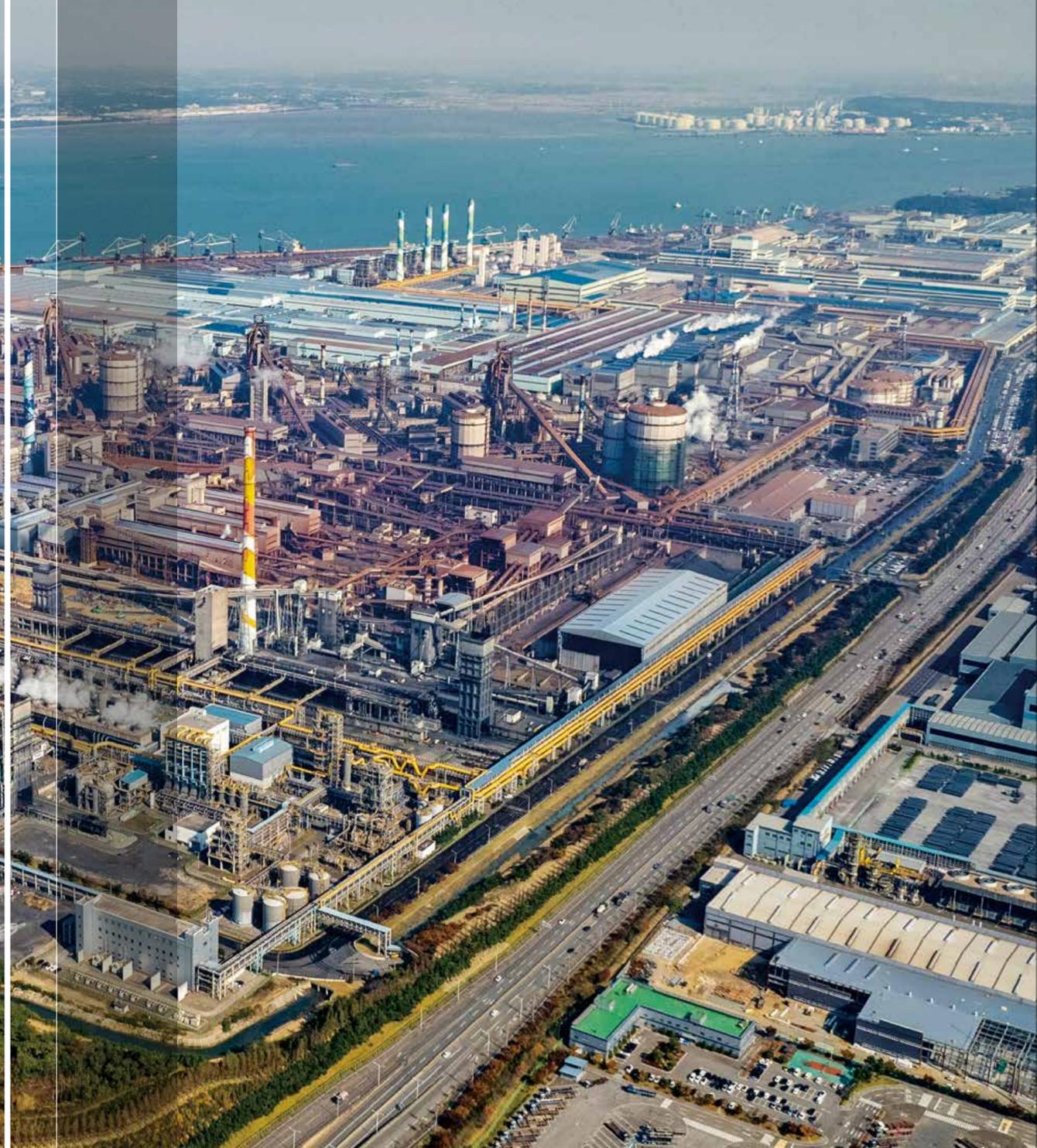
한국을 대표하는 철강기업으로 발돋움한 현대제철의 비상은 국내 사업장에서 시작했다.

5개 공장과 판교오피스를 발판으로 급격한 철강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며
성장을 거듭해 왔다. 앞으로도 국내 사업장의 탄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Dangjin Integrated Steelworks

당진제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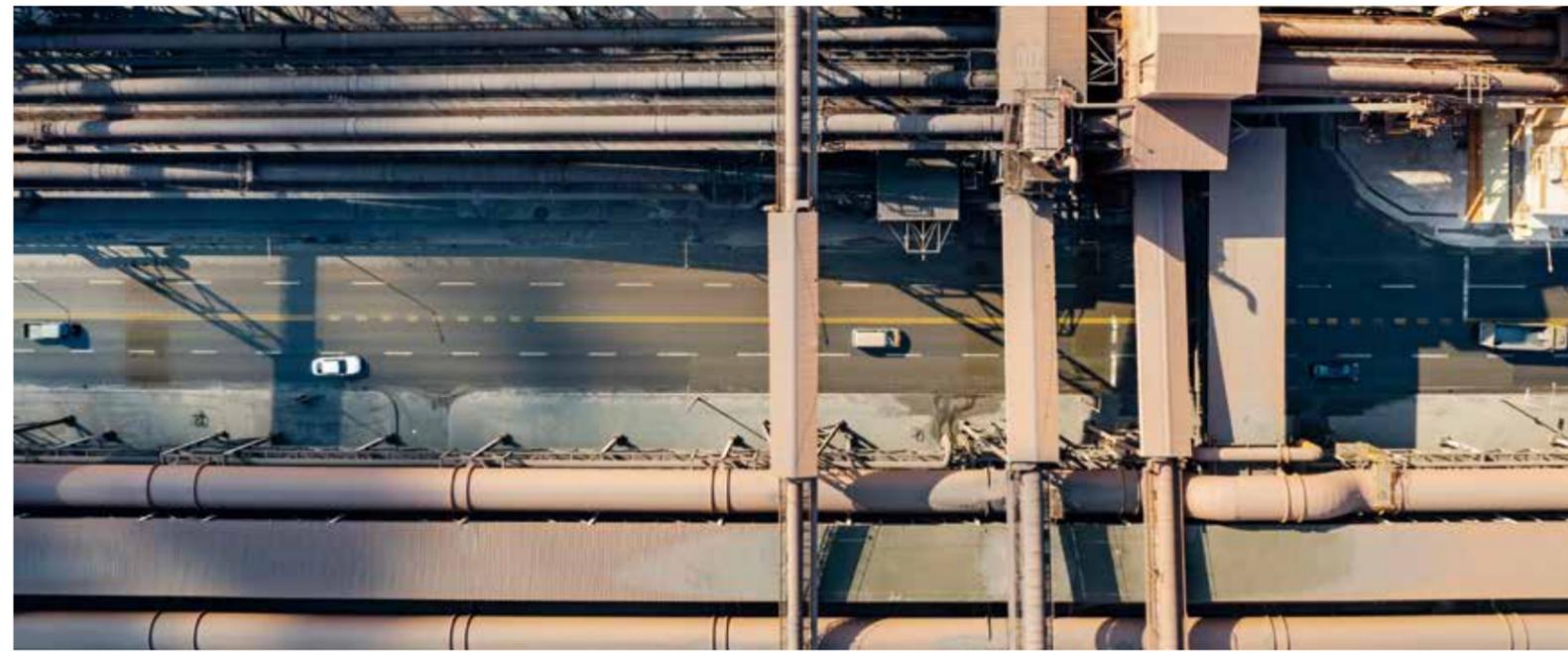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준공으로 역사적인 일관제철시대를 열었다. 2006년 기공식 이후 2010년 1월과 11월 각각 제1·2고로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 9월 제3고로를 완공해 총 3개의 고로를 상공적으로 가동했다. 이로써 총 1200만 톤의 조강생산능력을 확보했다. 2013년 12월에는 현대하이스트의 방언부문을 합병해 일스트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나아가 친환경 제철소, IT융합 최선 제철소, 자동차 소재 전문제철소로서의 변화에 주력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틈새시장인 수소경제 구축을 앞당기는 핵심 고리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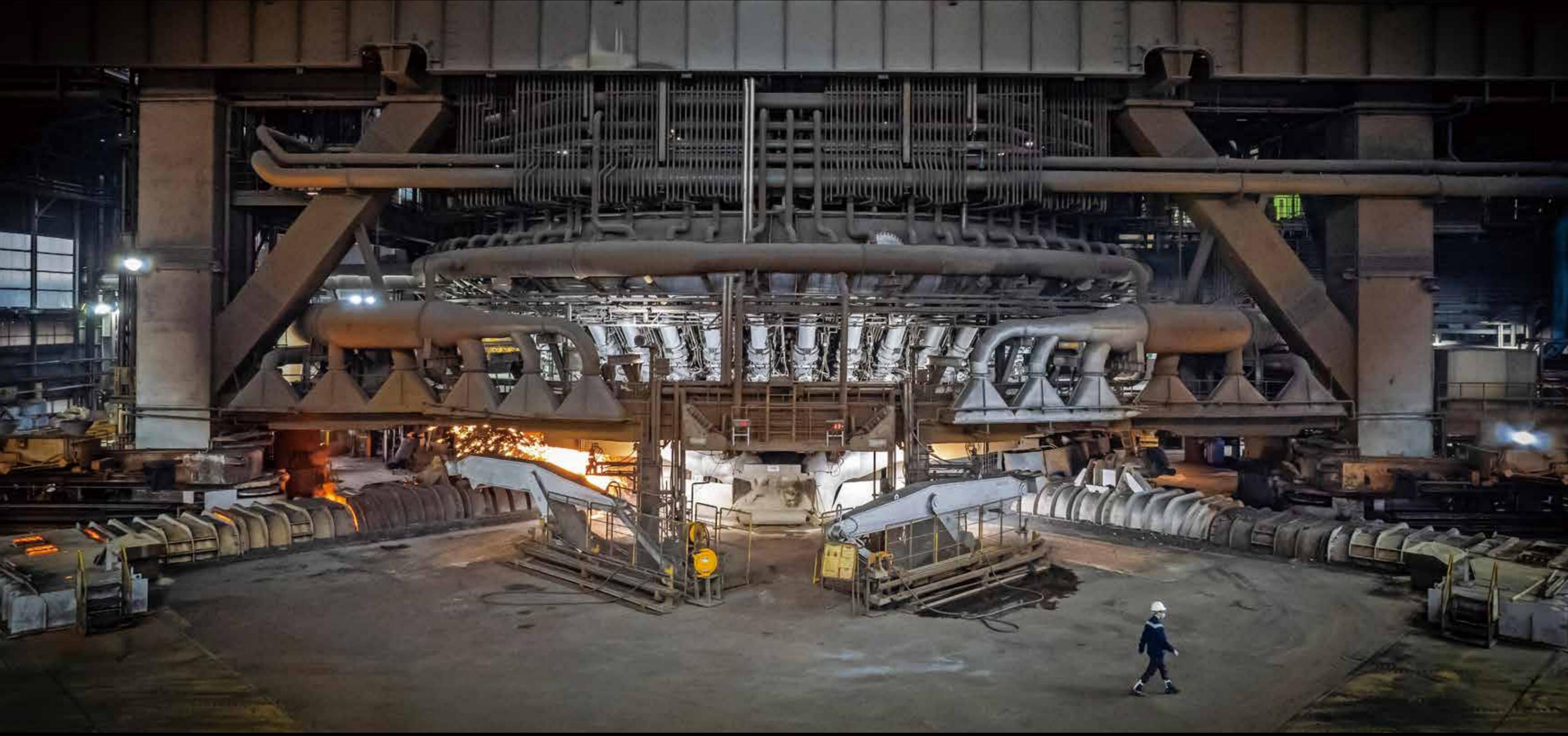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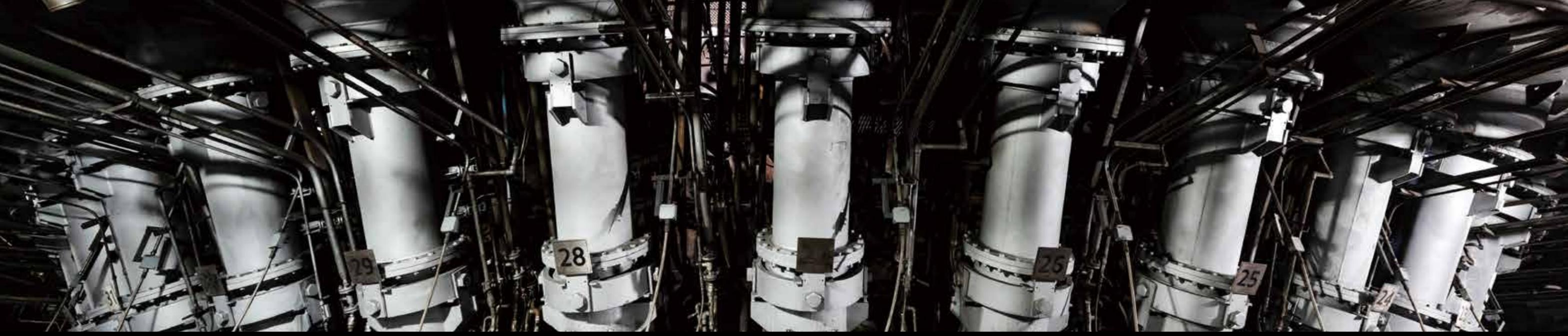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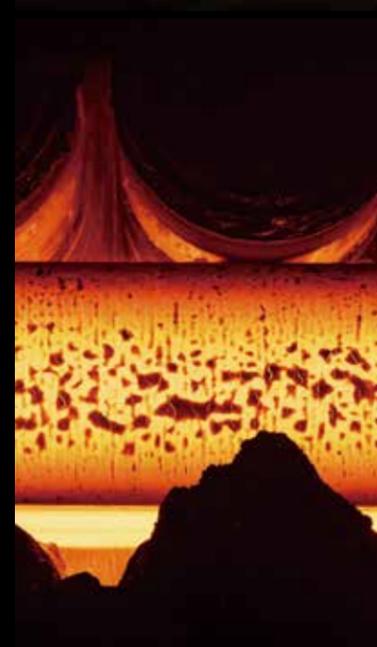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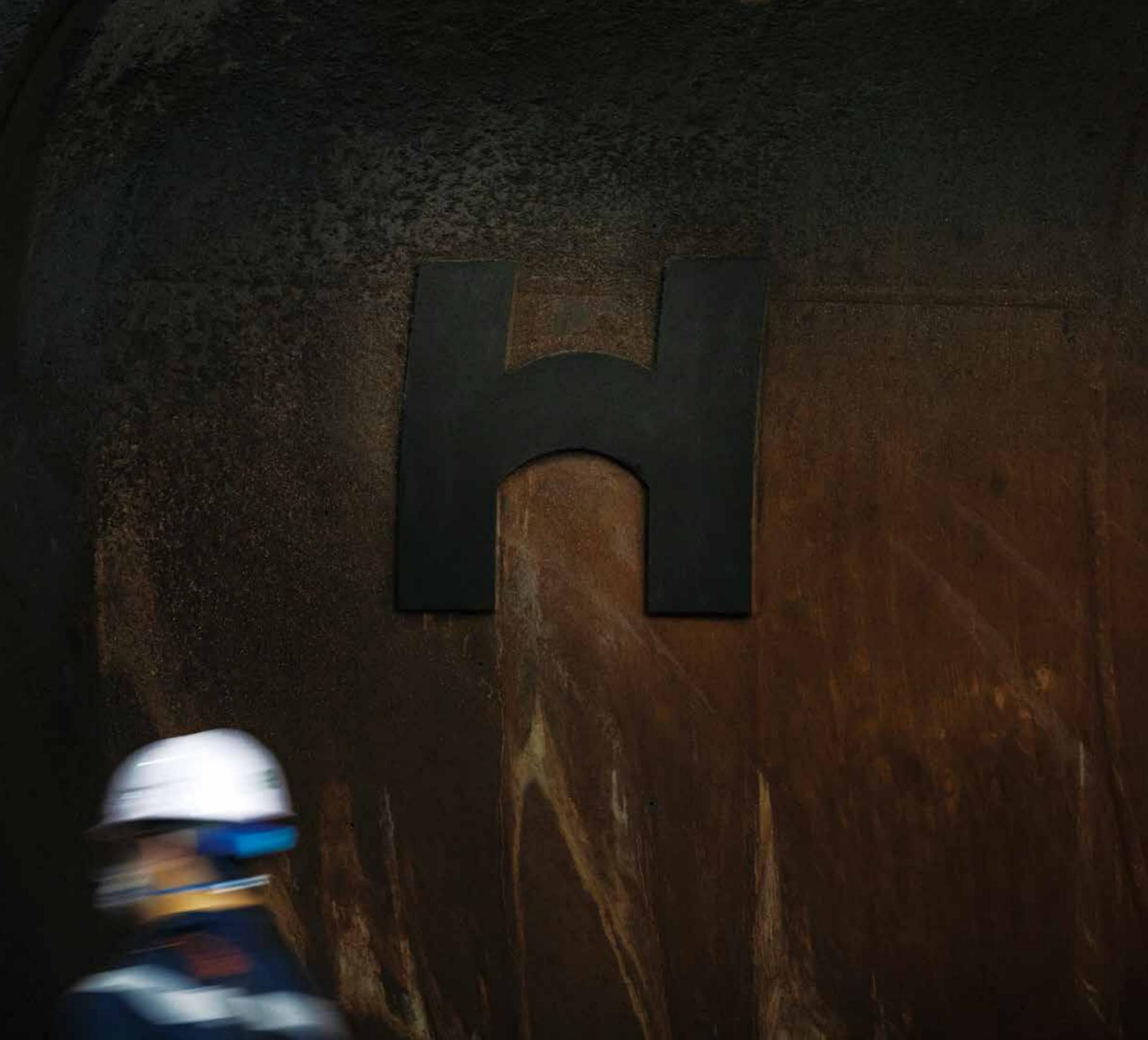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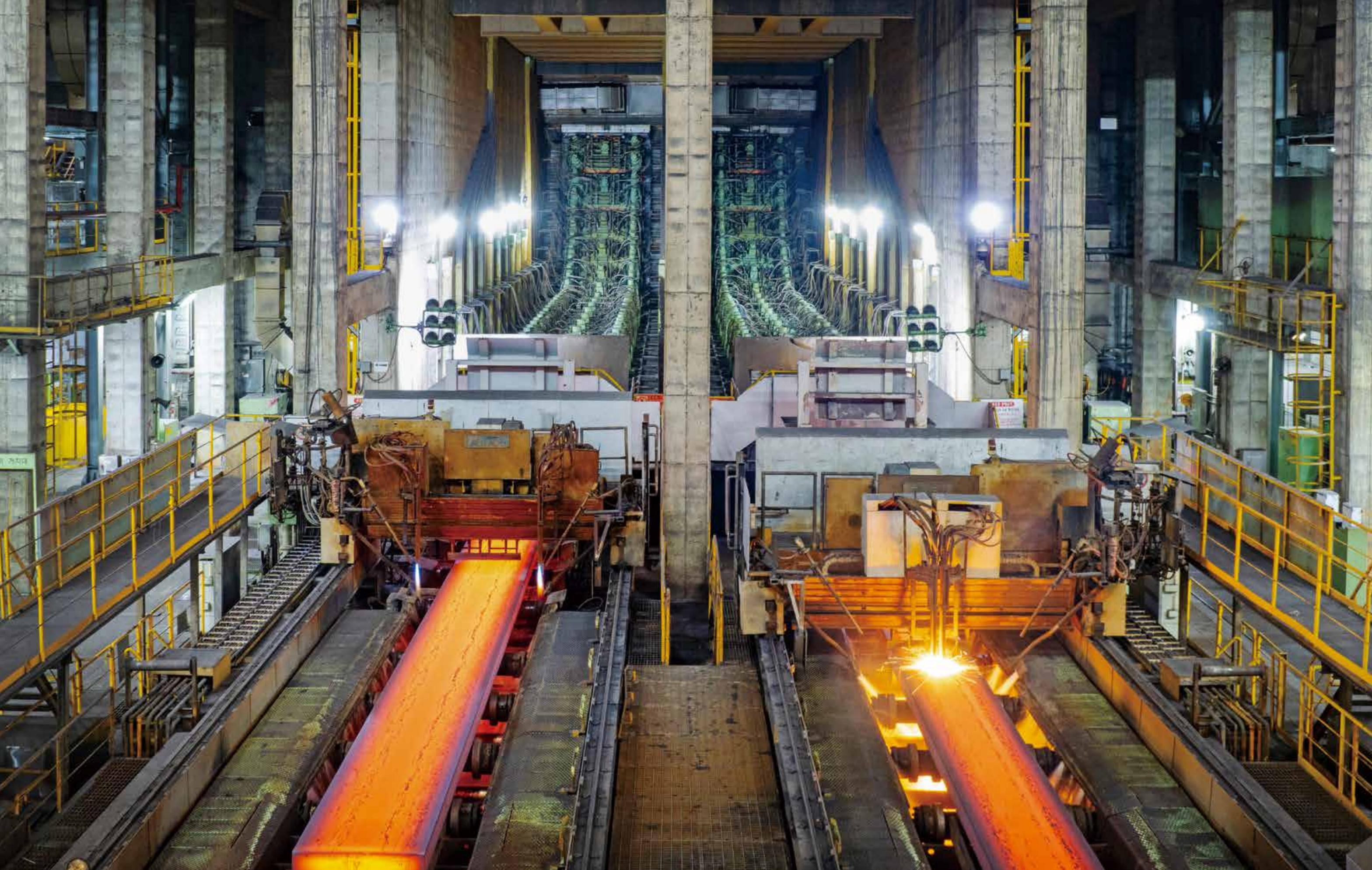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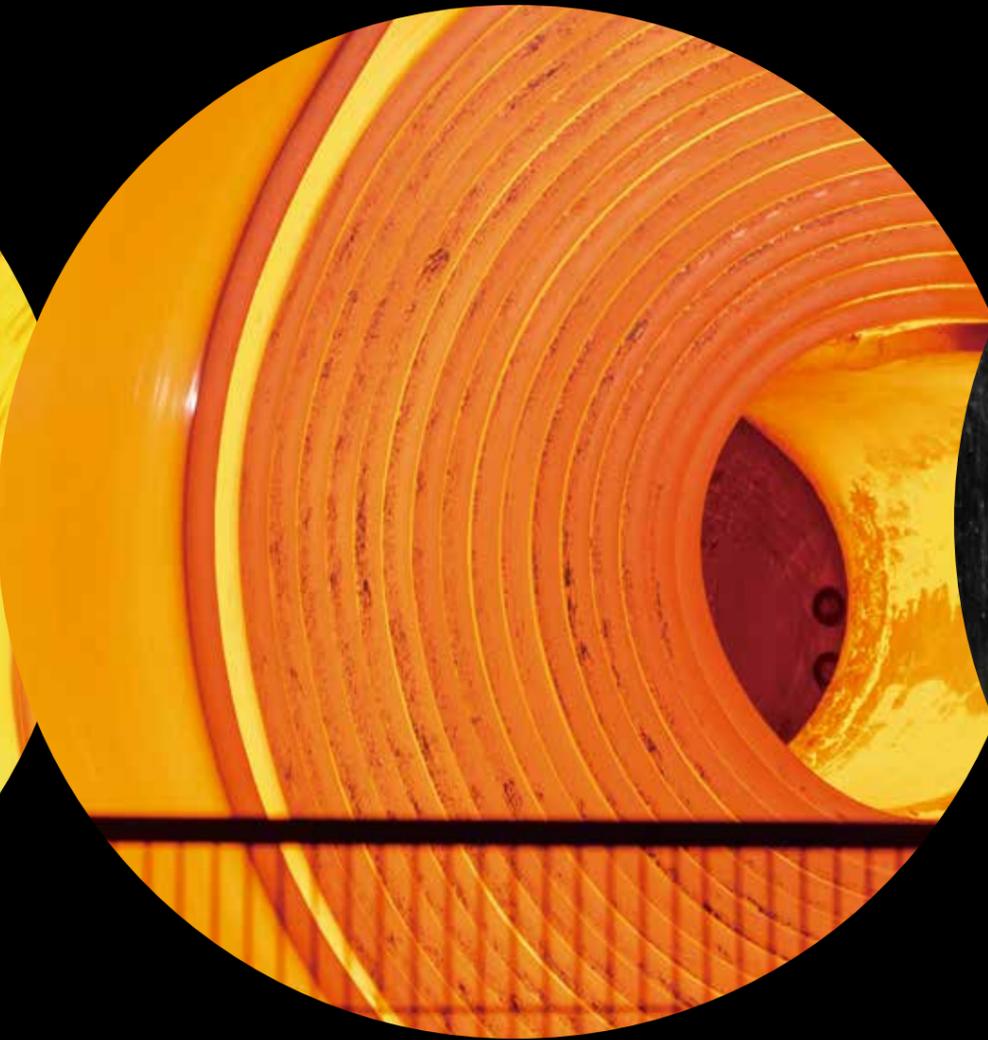














안전의식을 키울수록
행복의 소리도 커집니다



기초 안전 실천이
안전의 첫걸음입니다

13:27
 H/No S62046 강종 C10240L3LE001
 주입 53 완료 13:28 C10240L3LE001
 LD 008.7T 1561℃ SEQ 06-03
 TD 83.3T A 1531 3F-34ST 1503
 교환 000S C 0482 M 32- H 02.9
 Str3 Str4 폭가변 성분 P
 폭 1240 1012
 주속 1.33 1.33
 Slab 06-06 C7-56 Next 1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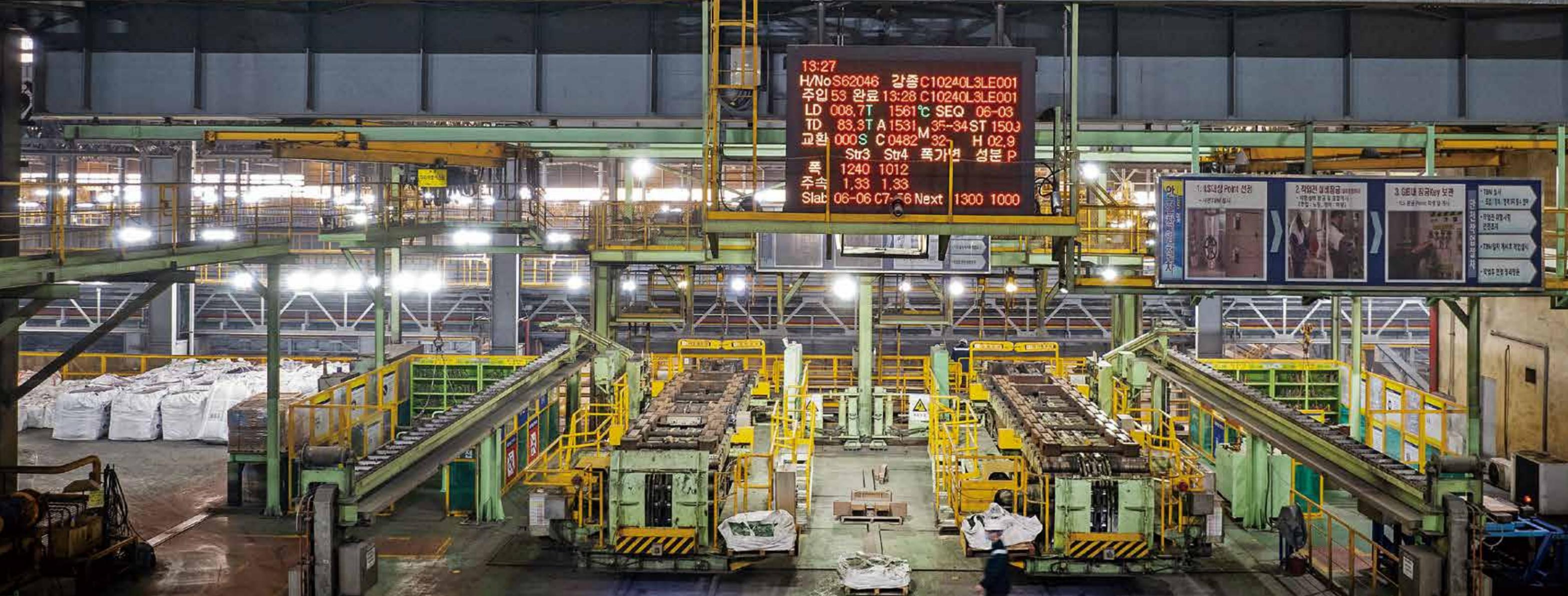
아

1. KS대상 Point 선정
- 작업장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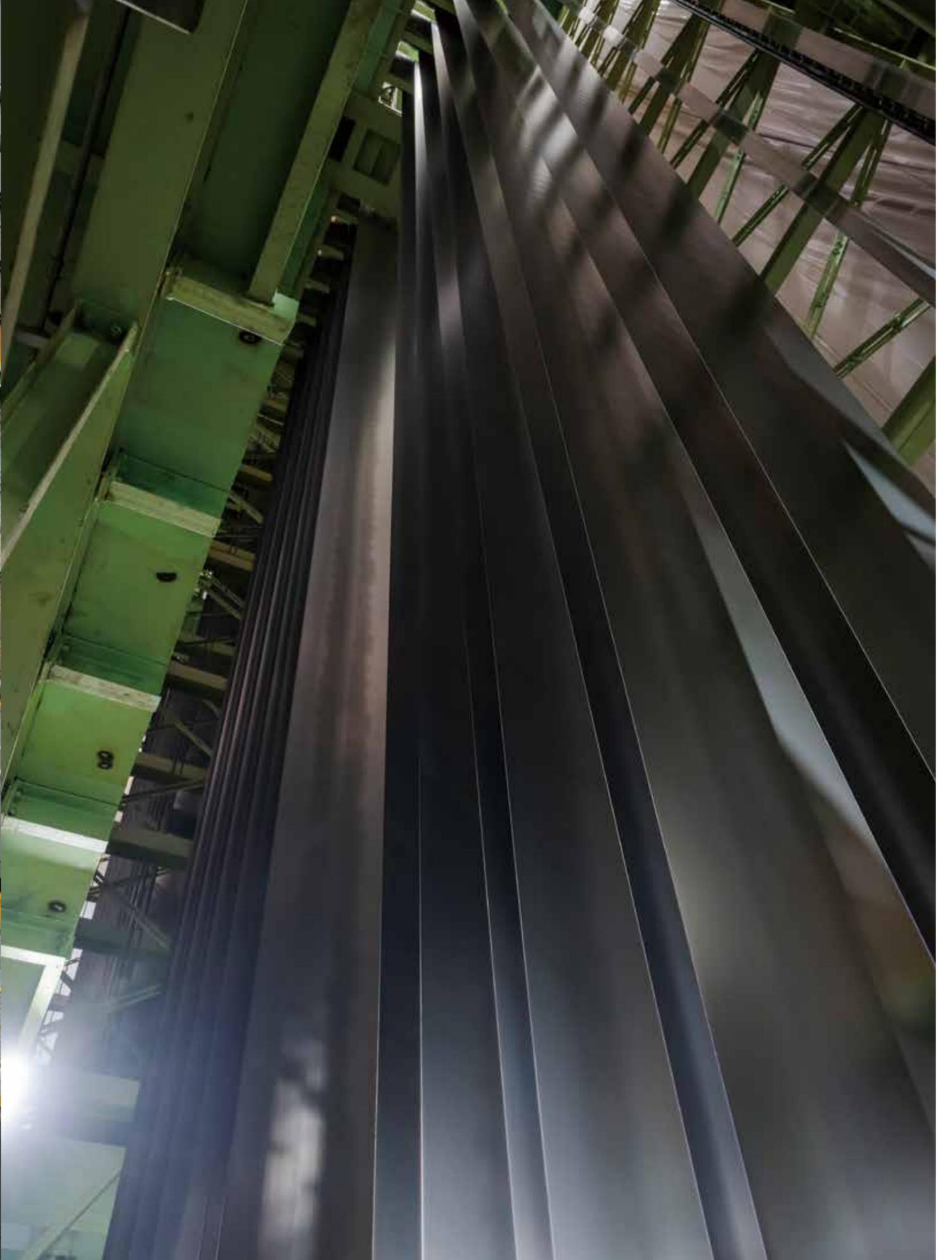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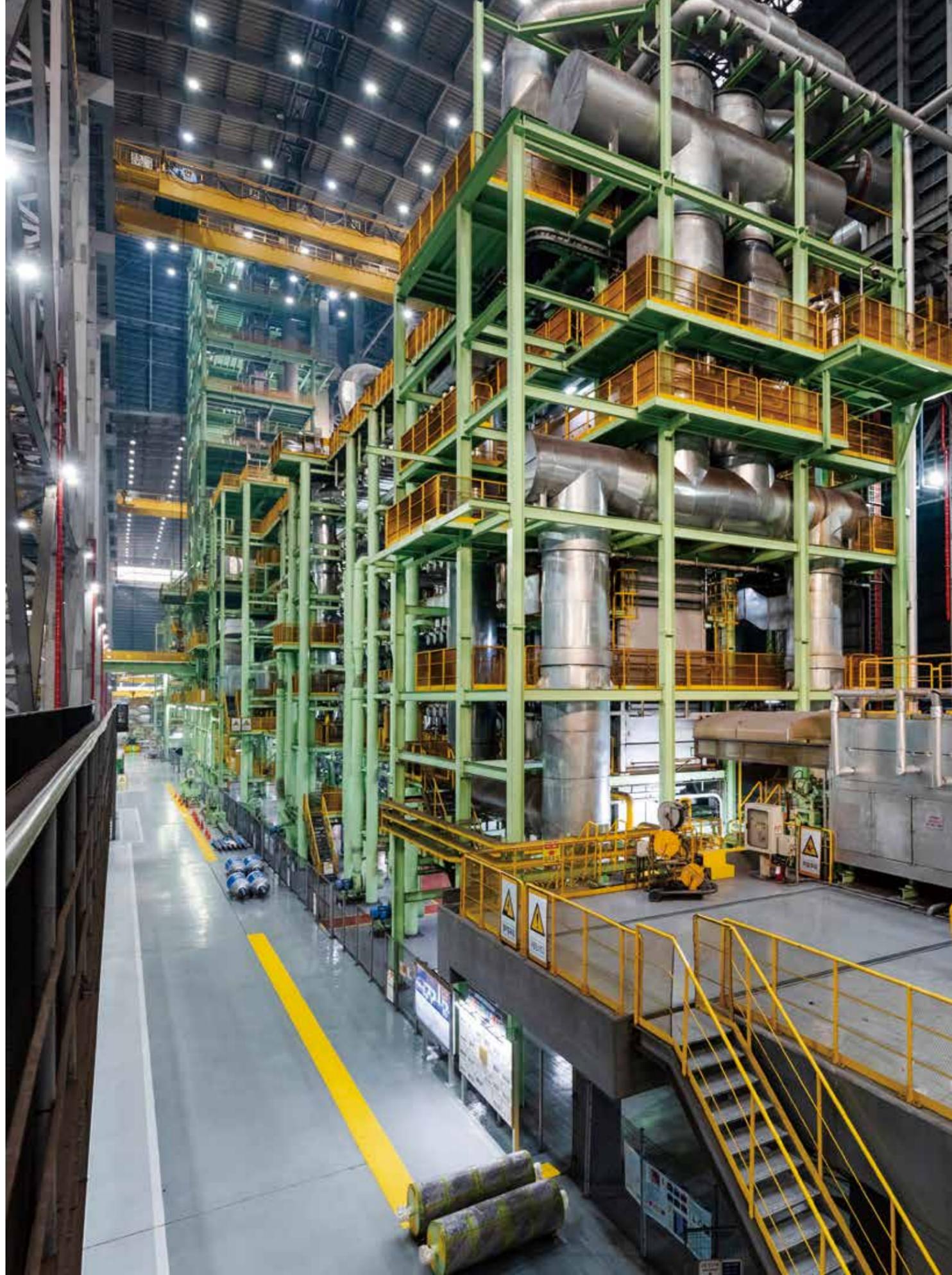
2. 작업전 안전점검 실시
- 작업장의 안전을 위한 점검 실시
(작업장, 노후, 장비, 작업)

3. 60초 점검Key 복판
- KS 완공 Point 현장 점검

4. TBM 보수
- 작업장 내 안전 점검 실시
- 작업장 내 안전 점검 실시
- 작업장 내 안전 점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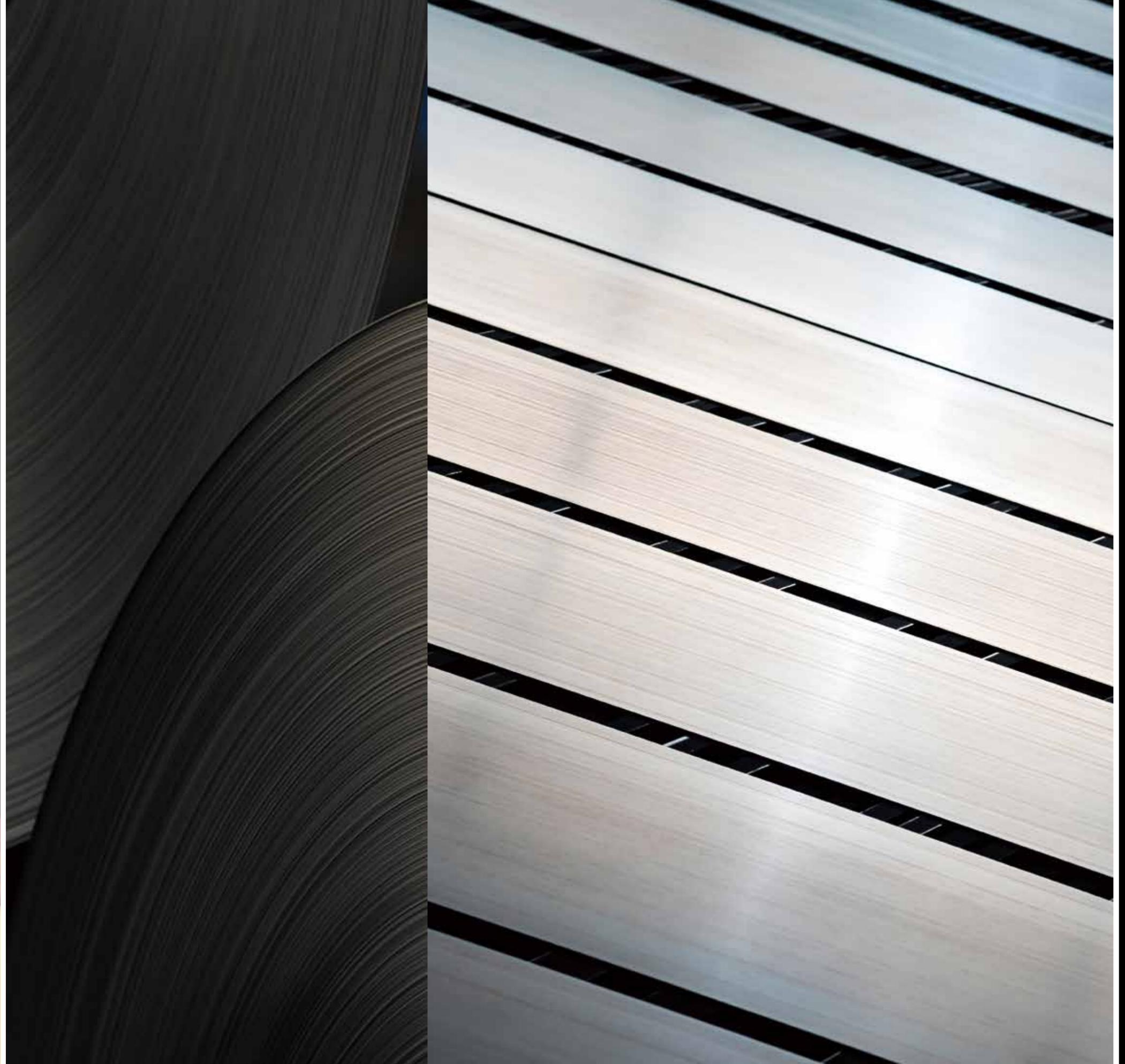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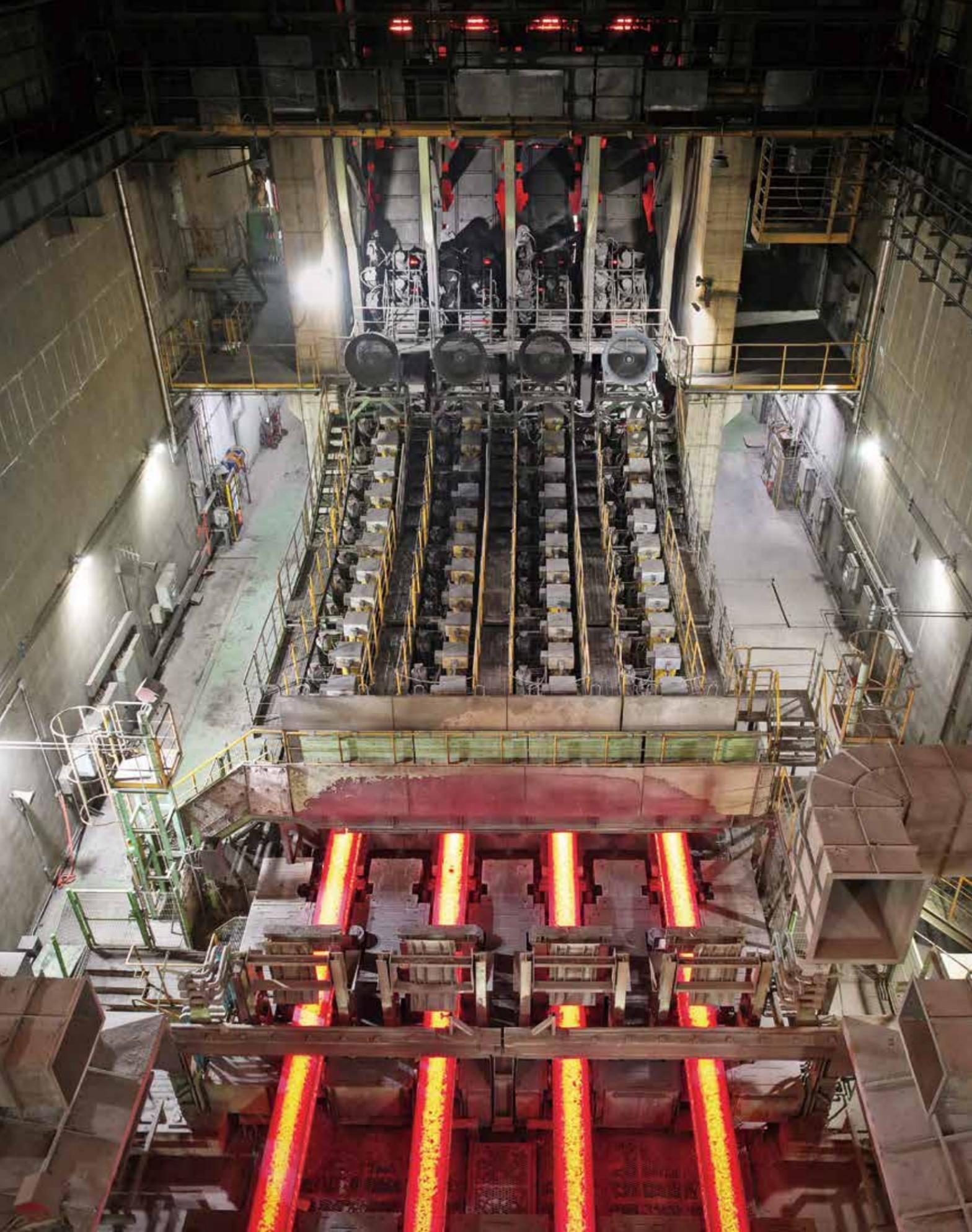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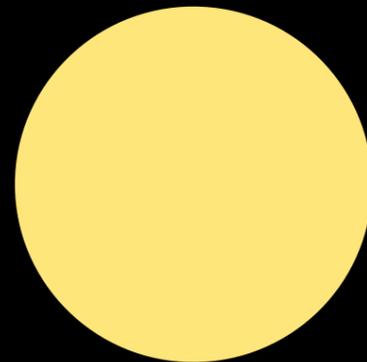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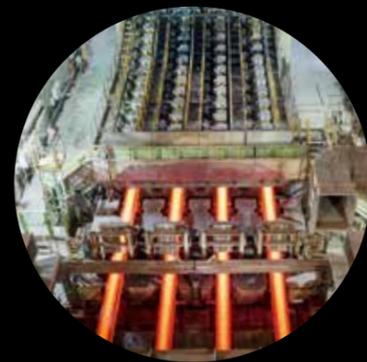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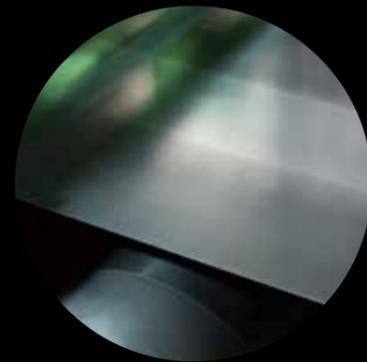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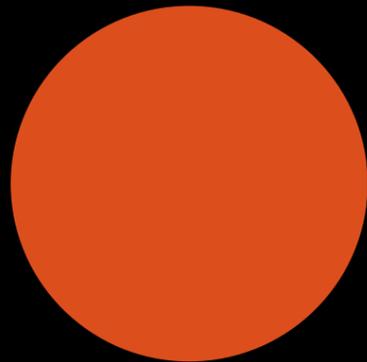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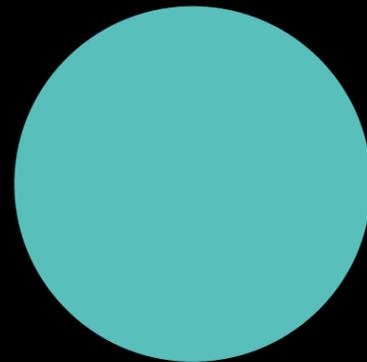












Incheon Works 인천공장

인천공장은 국내 철강산업의 모태이자 현대제철의 본사 소재지다. 1953년 대한중공업공사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1962년 인천중공업으로 상호 변경, 1964년 인천제철 설립, 1970년 인천제철의 인천중공업 흡수·합병, 1978년 현대그룹 편입, 2001년 INI STEEL로 상호 변경에 이어 2006년 현대제철 인천공장으로 거듭나며 우리나라 철강역사를 오롯이 품었다. 특히 연간 총생산능력 406만 톤에 이르는 전기로의 말항이자 탄소중립 철강 생산체계로의 핵심인 전기로 강자로서 현대제철과 지속가능한 제철산업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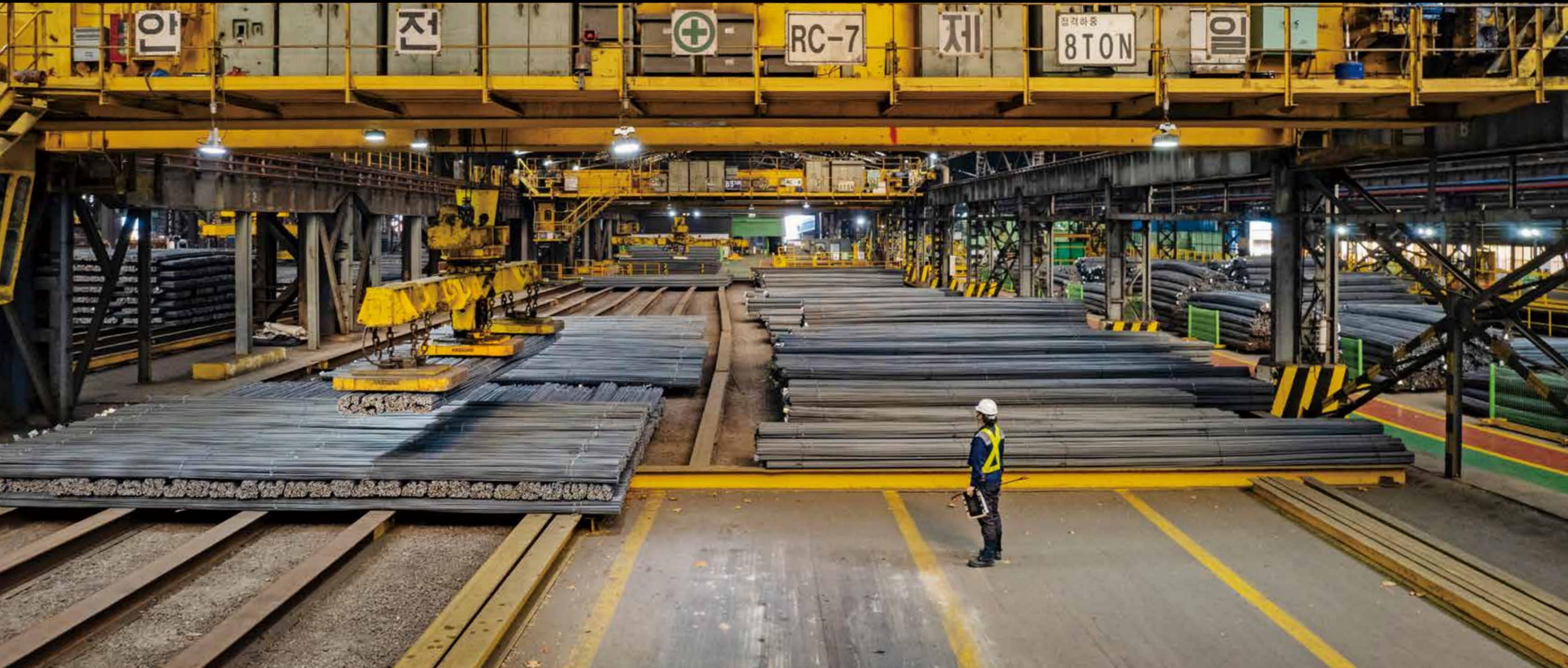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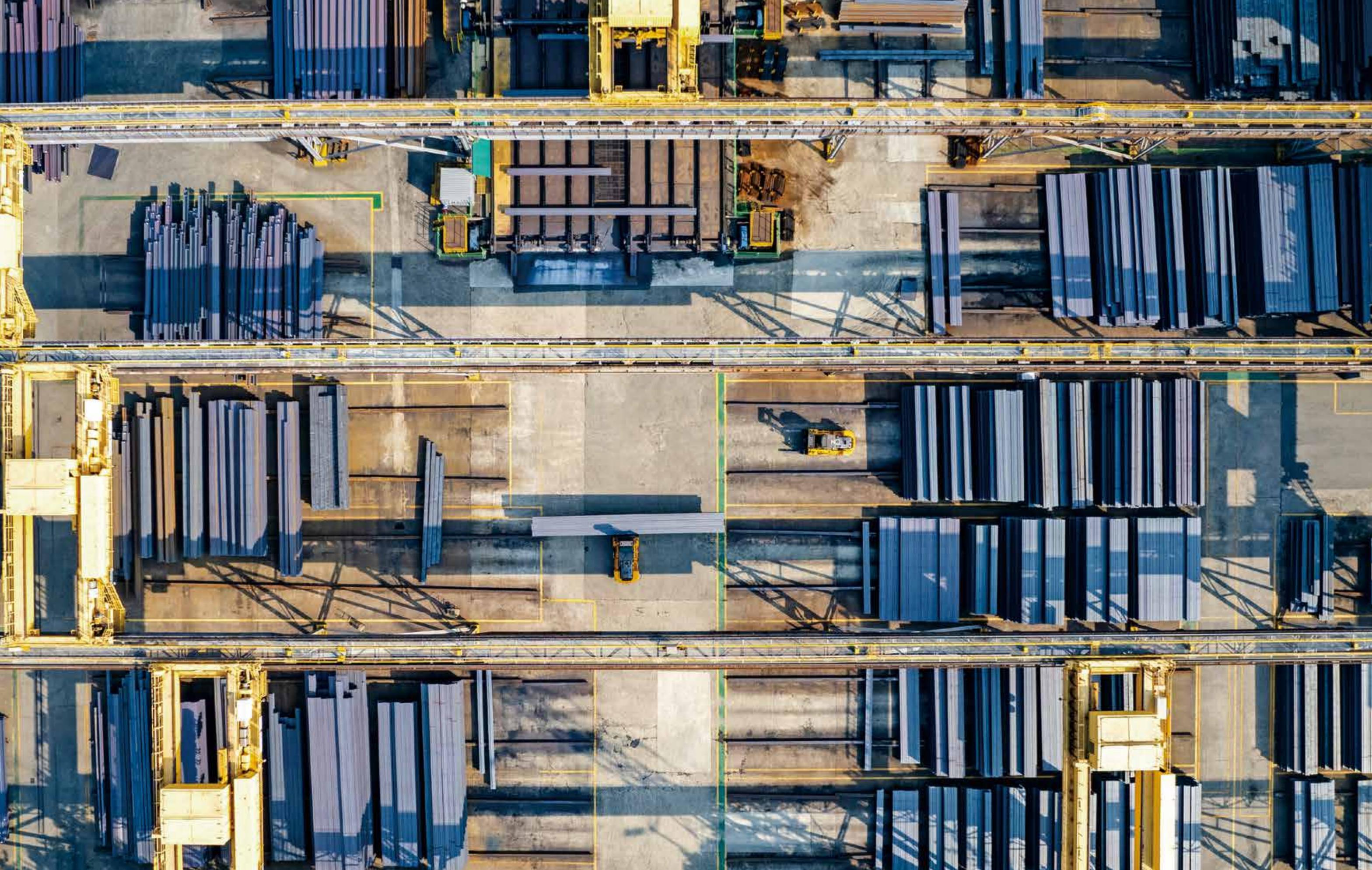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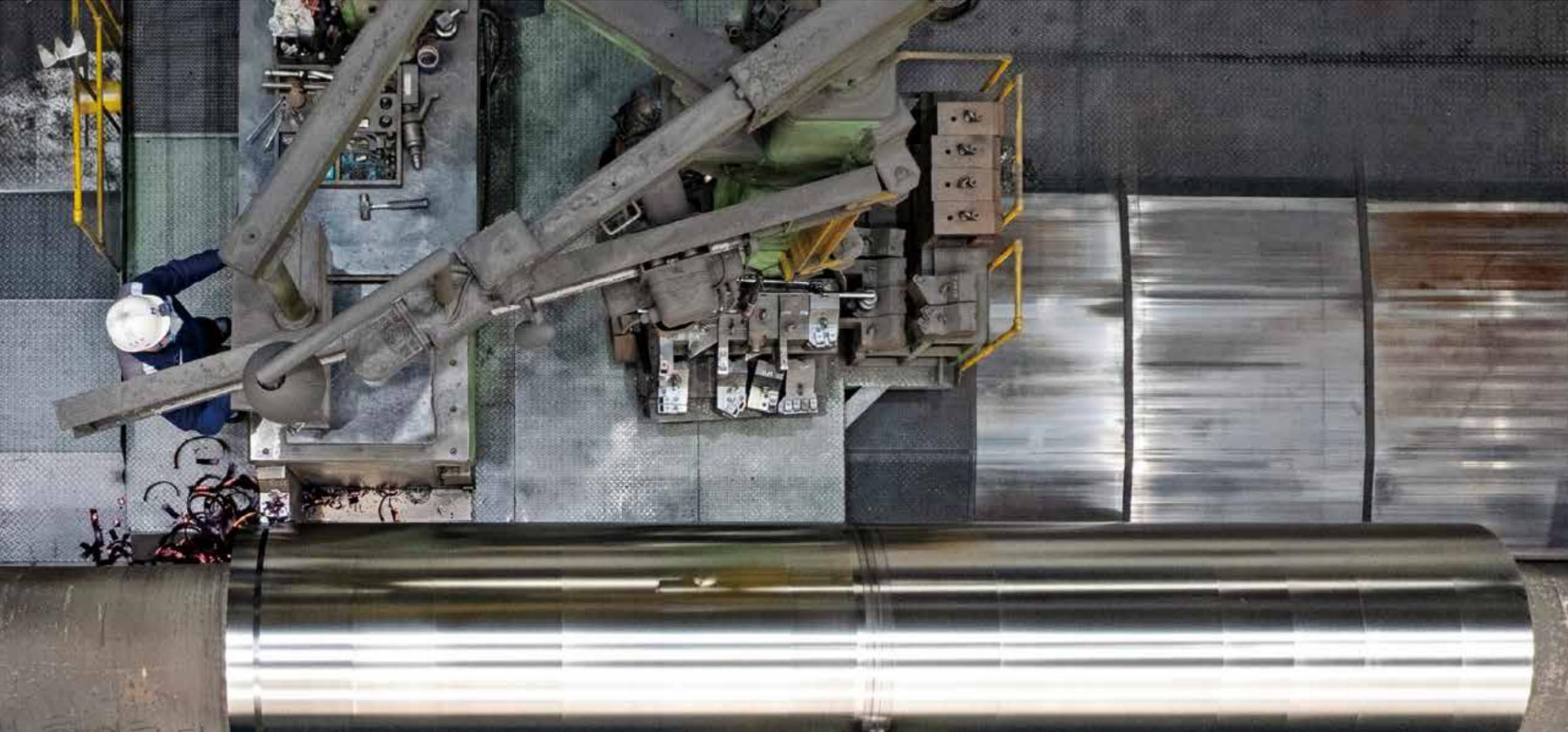


Pohang Works 포항공장

현대제철은 2000년 포항의 강관산업을 인수합병하며 세계 제2위 전기로 제강업체로 부상했다. 이후 포항공장은 인건공정과 함께 전기로 분야의 주력 사업장으로서 세계 일류 철강산품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반 레일과 고속철도용 레일을 생산하고, 세계일류산품으로 인정받은 안전벨트 제조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였다. 2023년 현재 연간 266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H형강, 철근, 특수강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Suncheon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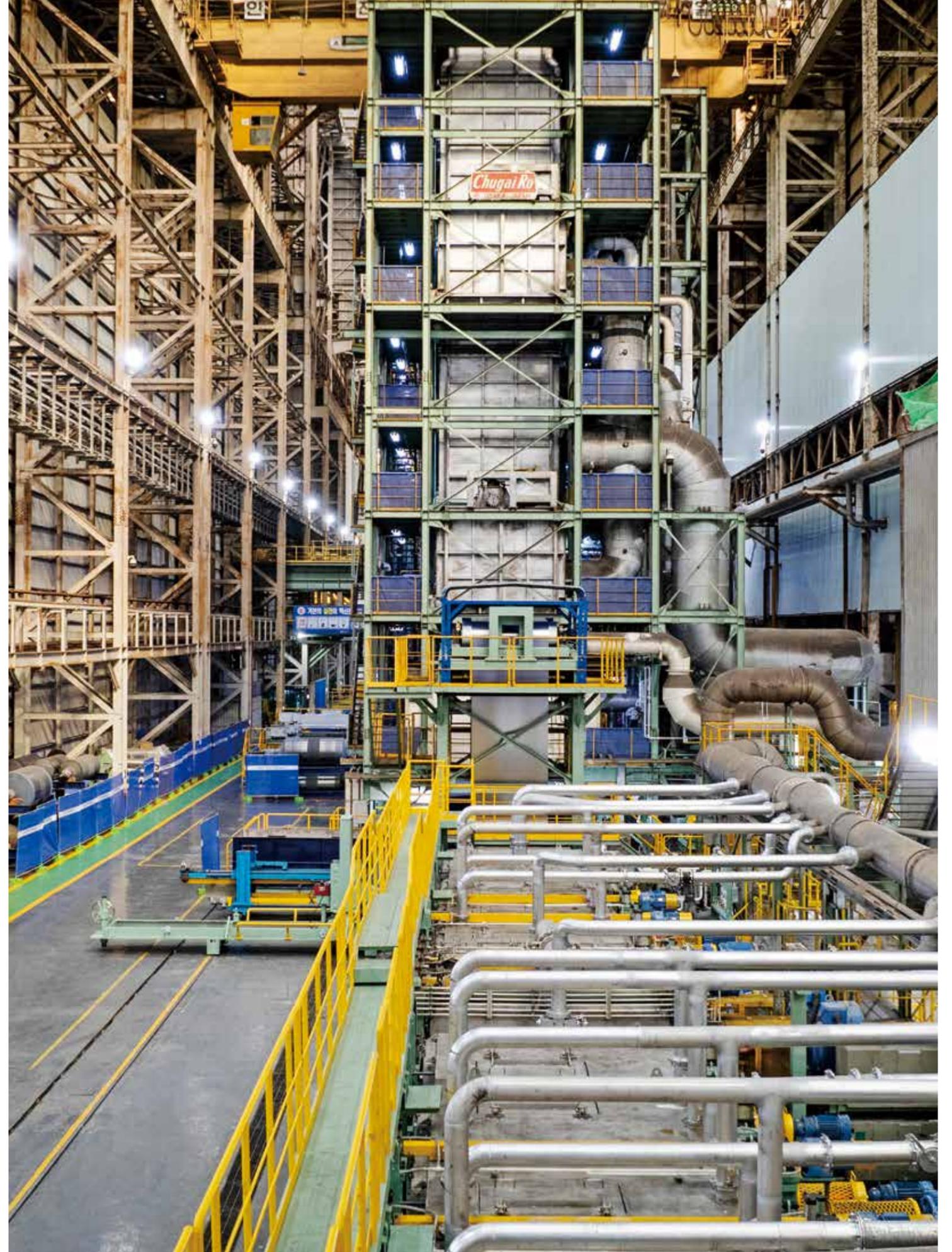
순천공장

순천공장은 1999년 상업생산을 시작한 현대제철의 방연강판 전문 생산거점이다. 철광석을 녹여 만든 열연제품을 상온에서 압연해 가공한 고부가 첨가인 방연강판은 두께가 얇으면서도 표면이 곱고 광택이 있어 자동차강판,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고급소재로 쓰이고 있다. 단일설비로는 세계 최대 120만 톤 규모의 연속소둔설비를 비롯해 용융이연도금설비, 전기이연도금설비 등을 갖추고 2023년 현재 연간 257만 톤의 다양한 방연강판을 생산하고 있다.









Ulsan Works

울산공장

울산공장은 강관부터 차량경량화제품까지 일관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발전 및 차량경량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강관공장에서는 전기저항용접(EFRW) 기술을 통해 송유관·유정관·전선관·파이프·압력관·임팩트바·프로펠러샤프트·보일러관·각관 등을 생산, 다양한 산업군에 공급하고 있다. 차량경량화제품공정에서는 핫스탬핑, TWB, 하이드로포밍 등 현대제철의 최첨단 기술력으로 최고의 차량경량화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연간 강관 75만 톤, 핫스탬핑 340만 pcs, TWB 440만 pcs, 하이드로포밍 210만 pcs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HYUNDAI STEEL R&D Center 현대제철연구소

현대제철연구소는 당진제철소 기공식 전인 2005년 12월 건설을 시작했다. 일관제철소사업을 위한 첫 준비가 바로 R&D 투자였던 것이다. 2007년 2월 당진제철소 내에 완공한 후 연구동, 통합개발센터, 제신시험동, 특수강시험동 등을 갖추고 고객의 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매진했다. 고부가가치 자동차강판과 항공·철근, 에너지강재를 비롯해 고객맞춤형 엔지니어링 기술, 공정 자동화 기술, 친환경·미래형 에너지기술 개발을 통해 현대제철이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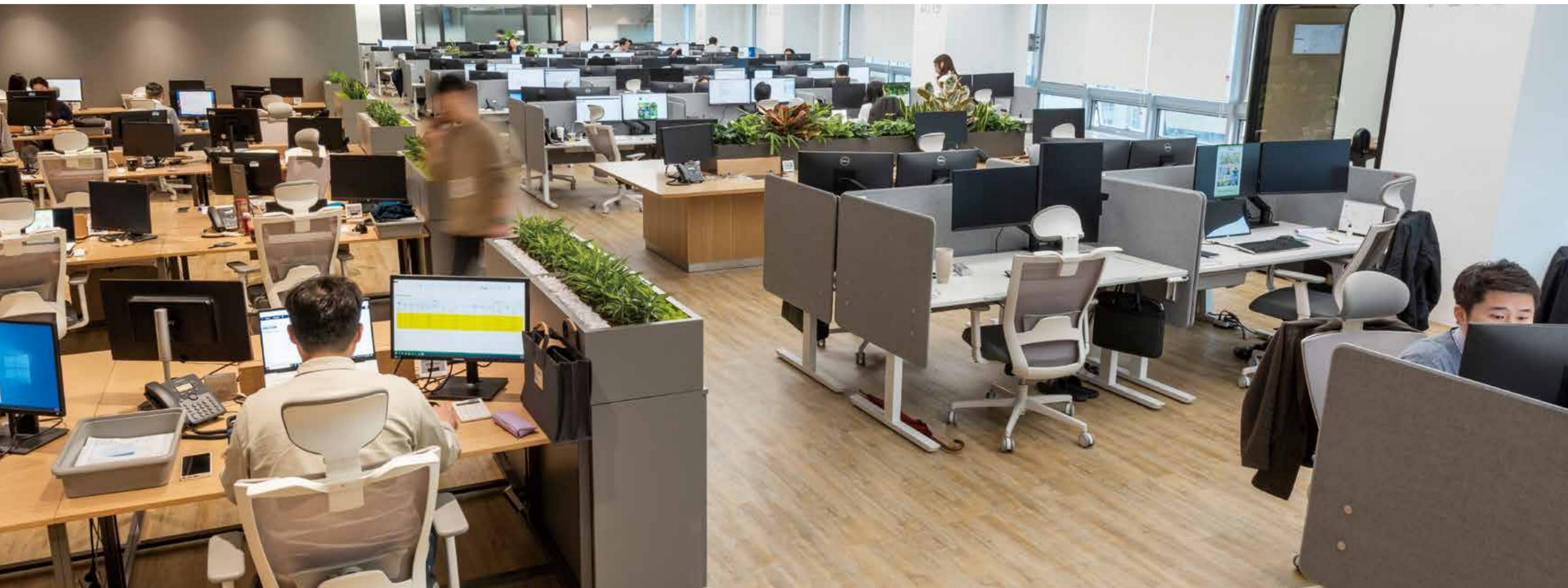


포커스룸
Focus
Room
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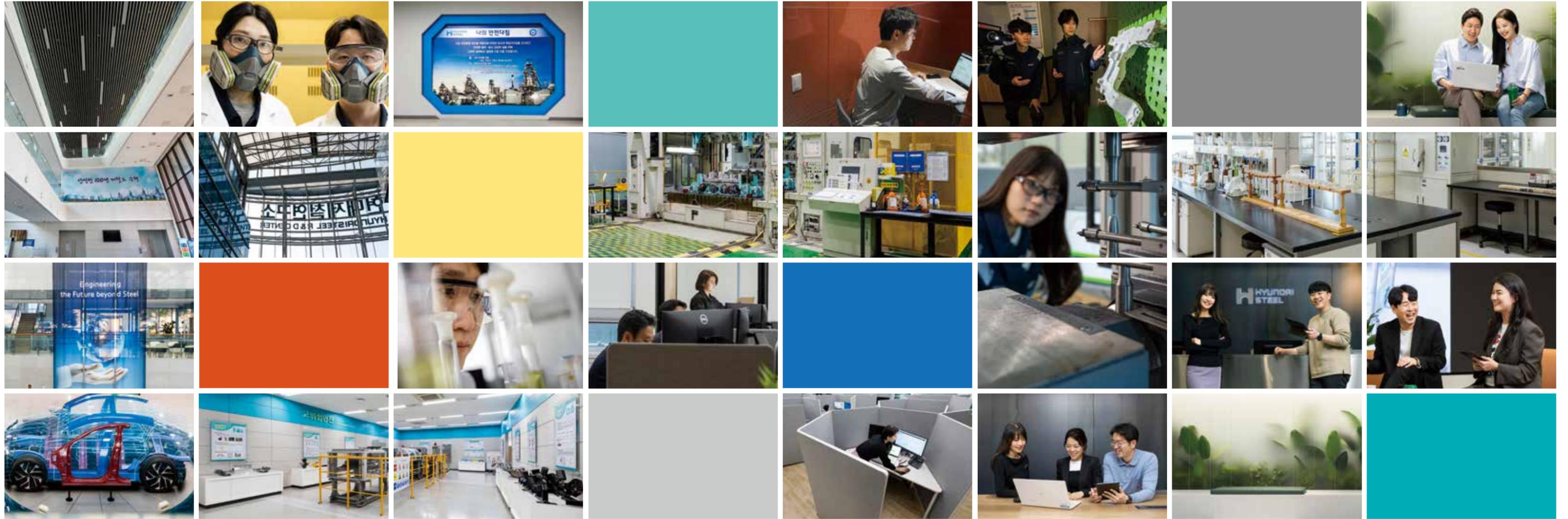


Pangyo Office 판교오피스

현대제철은 2023년 1월 판교시대를 개막했다. 15년여 동안 터전으로 삼은 현대자동차그룹 양재사옥을 떠나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새 통합사옥으로 이전, 우리나라 IT산업의 중심지인 판교에서 미래 철강산업의 포문을 열었다. 대형 철강회사가 IT산업단지인 판교로 이전하는 첫 사례였다. 경기도 분당구 분당내곡로 117에 위치한 '그레이츠판교'는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로 현대제철은 이 기운데 4개 층을 사용한다.







현대제철 해외 사업

HYUNDAI STEEL's GLOBAL BUSINESS

대한민국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철의 가능성을 넓혀 온 현대제철은 국내에서 해외로 무대를 확장하며 글로벌 종합철강회사로서 당연한 입지를 구축했다.

중국 청도공장을 비롯해 14개국에 18개 해외법인과 10개 지사를 글로벌 거점으로 구축해 세계시장 확대의 교두보로 삼았다. 중국 7개 법인, 미국 2개 법인, 인도 3개 법인과 함께 슬로바키아, 체코,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튀르키예 등에 각각 1개 현지법인이 진출해 있다.

특히 현대차·기아의 해외공장이 진출한 곳에 스틸서비스센터(SSC)를 설립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2015년 현대하이스코를 합병한 이후 해외 SSC를 운영하면서 자동차강판 판매를 확대해 나갔다.

















**HYUNDAI
STEEL**

**HYUNDAI
STE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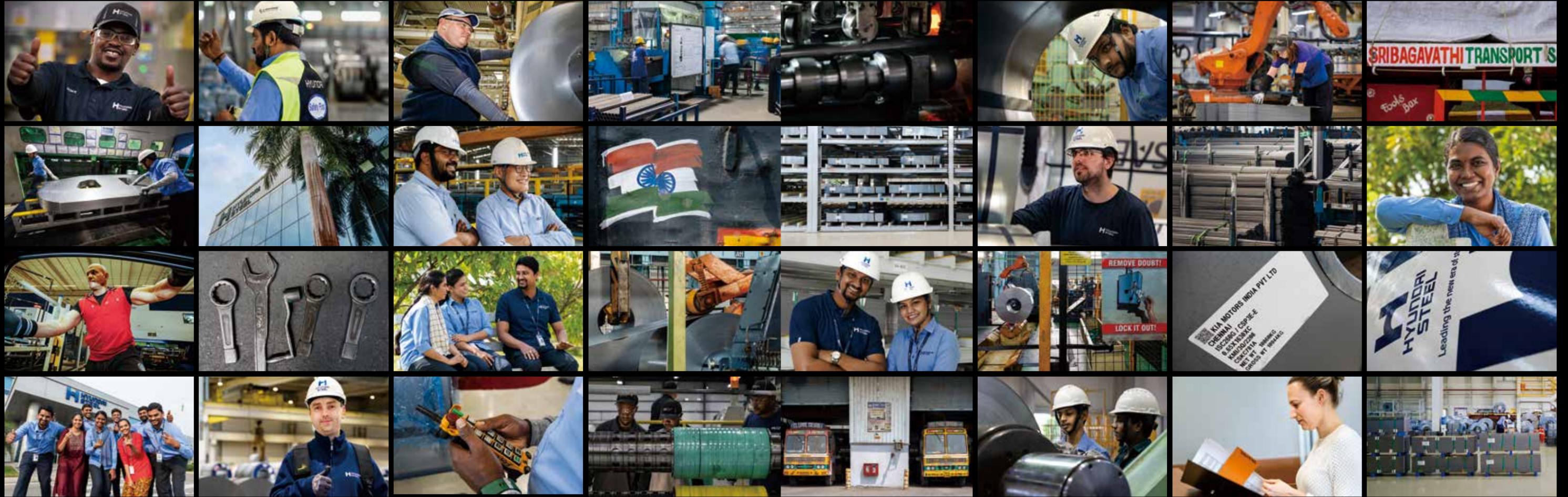












창립 70주년 기록화 위원회

위원장 안동일 사장

실무위원장 서상원 전무

실무위원 장영식 상무

간사 박천택 홍보팀장

TF팀 김병규 책임매니저

문혜린 책임매니저

정연만 책임매니저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제작 (주)사사연
02-569-4409
www.sasayeon.com

제작 총괄 이언배

원고 집필 김성겸, 류인호, 안영은

기획 진행 송미경, 박경아, 김가원, 김효열

디자인 박수진, 심재민, 신미경, 최현아

사진 촬영 신한호, 김도근

사진 제공 이승우(현대제철)

문장 감수 우재욱

인쇄 제작 넥스프레스

현대제철 70년 | 화보

HYUNDAI STEEL 1953-2023

인쇄 2023년 8월
발행 2023년 8월
발행처 현대제철(주)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www.hyundai-steel.com

비매품